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4월 5일 금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64호

용남될수 없는 주한미군주둔비용책정

올해 주한미군주둔비용이 인상된 것과 관련해

이미 보도된 것처럼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주한미군주둔비용을 지난해 4억7000만달러 보다 훨씬 늘어난 미화 5880만달러와 한화 5368억원으로 책정하고 이같은 내용의 한미협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우리 국민과 온 겨레의 지향에 대한 도전행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우리 국민의 반미투쟁기운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각계의 민중들속에서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가 조직되어 주한미군기지반환투쟁과 주한미군철수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고 특히 주한미상공회의소점거투쟁, 미대사관기습투쟁을 비롯한 부시의 방한반대투쟁과 미국의 북침전쟁연습을 반대하는 거족적인 반미투쟁은 우리 국민의 드팀없는 반미지향과 의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관계당국이 민의에 도전해 엄청난 액수의 돈까지 섬겨바치며 주한미군유지를 애걸해 나서고 있으니 이야말로 민중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친미사대매국에만 환장이 된 민족반역자들만이 자행할 수 있는 극악한 매국배족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시기 이 땅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이 땅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지배를 끝장내는 것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민족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야말로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집행의 돌격대로써 우리 민족의 화해와 자주평화통일을 방해하는 기본장본인입니다. 우리 민족이 분단된지 반세기가 넘도록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도 그리고 모처럼 마련됐던 남북간의 화해와 통일분위기가 파탄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도 바로 주한미군의 존재와 북침전쟁책동 때문입니다.

특히 부시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이북에 대한 ≪악의 축≫망발을 연발하면서 주한미군기지까지 찾아가 북침열을 고취하는가 하면 대규모 북침전쟁연습을 벌여놓는 것과 동시에 이북에 대한 핵선제공격계획까지 공개하면서 일촉즉발의 핵전쟁위기를 몰아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이 이로 말미암아 생사기로의 처지에 놓여 있는 지금, 주한미군철수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족의 운명과 결부된 사활적인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당국이 이 모든 것을 외면한채 주한미군유지비까지 섬겨바치는 것은 민족공멸을 초래할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에 키질하고 날개를 달아주는 격의 민족반역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땅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지배책동으로 해서 절대다수의 근로민중이 극심한 생활난에 시달리며 노숙자와 방랑아, ***자와 **자가 늘어나고 생존권요구분출이 날로 높아지는 이때, 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천문학적 액수의 국민혈세를 침략군에게 섬겨바치고 있으니 이보다 더한 반국민적 행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같은 사실은 관계당국이 고통분담이요, 경제회생이요, 국민복지요 뭐요 하고 떠들지만 이것은 한낱 저들의 반국민적, 반민족적인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핵전쟁의 참화에 몰아넣고 우리 인민의 명줄을 조이는 주한미군주둔비용책정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관계당국은 저들의 주한미군유지비용책정이 초래할 파국적 결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이를 당장 취소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은 이 땅에서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제침략군을 몰아내지 않는 한 언제가도 발편잠을 잘 수 없고 민족공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반미반전투쟁에 한사람같이 동참해나서야 할 겁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3일

김용순비서와 림동원특사 회담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용순비서와 남측의 요청에 따라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대통령의 특사인 림동원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사이의 회담이 3일에 있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폭넓게 토의하였다.

우리측은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발표이후 화해와 단합, 통일을 지향하여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안팎의 호전세력의 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악화되고 북남공동선언리행이 엄중한 국면에 처해 있다고 언급한 다음 이에 대한 책임이 미국과 함께 남측에도 있다고 강조하였다.

우리측은 이번에 우리가 림동원특사의 평양방문요청을 수락한것은 민족앞에 닥쳐 온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직접 마주앉아 남측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풀어 나갈데 대한 6.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민족끼리 공조해 나갈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들어보려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우리측은 또한 남측이 력사적인 평양상봉때 ≪주적론≫이라는것이 더는 없을것이라고 하고도 계속 그것을 제창하면서 전쟁소동을 일으키는데 대하여 엄중시하고 6.15공동선언리행에 대한 근본립장부터 바꿀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회담은 계속된다.

이에 앞서 김대중대통령의 특사인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 림동원이 3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완수부위원장이 특사일행을 맞이하였다.

조선신보 2002/04/04

2 노작
• 주체사상에 대하여(8)

4 세기와더불어
• 5장 4절 혈전의 준비 (1)

6 칭송
• 장군님께서 백두산에 오르시는 까닭
• 지금은 봄이다
• 더욱 강화 발전되는 조선의 사회주의

7 구국의 소리
• 6.15선언이행에 제동을 거는 자들에겐 앞길이 없다
• 구국의 소리 뉴스 – 4월 3일
• 자주통일운동을 힘차게 벌여나가자
• 민족대단합의 장이 될 ≪아리랑≫축제

9 조선중앙방송
•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자
• 고상한 도덕생활기풍을 활짝 꽃 피우자 (1)

11 평양방송
•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숭고한 덕성을 지니신 인덕의 최고 화신

12 아리랑뉴스
•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서명
• 보이기 시작한 희망, 문화반미 소용돌이치는 한국
• 고 조중필씨 5주기 추모제
• ≪민주노동당≫이 국민신뢰 1위정당으로 집계
• 이회창 발언 파문
• 민주노총, 노정합의안 거부 선언
• 테러방지법 ≪만들 필요 없다≫
• 조작간첩사건 ≪시효 소멸≫ 배상 기각

15 운동강좌
• 조선노동당과 한민전의 영도자
• 조선노동당과 한민전의 지도이념

16 조국통일3대헌장
• 90년대통일에로 (2)

주체사상에 대하여 (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 주체71(1982)년 3월 31일

4.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3)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어야 한다

혁명운동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만큼 혁명과 건설에서는 반드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며 인민대중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사상개조사업,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합니다.

① 사상개조선행

사상개조는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텔리화하여 그들을 주체형의 공 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것을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시였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면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사회관계를 변혁할 뿐아니라 사람들 자체를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을 개조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생산력이 높은 수준에 이르고 물질적 부가 풍부해진다 하여도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되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으로 만들자면 그들을 공산주의사상과 선진과학기술지식으로 무장시켜야 하며 높은 문화수준을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 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입니다. 사람들의 가치와 품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상이며 따라서 사람을 개조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상을 개조하는 것입니다.

사상개조는 사람들의 물질생활조건을 개변하는 사업이나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 사업보다 더 어려운 사업입니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사회경제적 처지와 물질생활조건들에 의하여 제약되지만 사회경제적 처지와 사회생활의 물질적 조건이 변한다고 하여 저절로 개변되는 것이 아닙니다.

낡은 사상잔재는 매우 보수적이고 집요합니다. 사상개조는 복잡하고 장기성을 띠는 사업이며 정력적으로 투쟁하여야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상개조는 하나의 심각한 혁명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영역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종국적으로 없애고 모든 근로자들을 선진적인 노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투쟁이며 착취계급이 청산된 사회주의사회에서 벌어지는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을 이룹니다.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 침투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없애고 그들을 새로운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해야 나가야 합니다.

사상개조에서 기본은 혁명적 세계관, 혁명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열렬한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들자면 그들 속에 혁명관을 옳게 세워야 합니다.

혁명에 어떻게 대하며 혁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가하는가 하는 것은 결국 혁명관이 어떻게 섰는가 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녀야 할 혁명관은 주체의 혁명관입니다. 주체의 혁명관은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에 대하는 관점과 입장이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 혁명정신입니다.

주체의 혁명관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며 당과 수령의 영도 밑에 수행됩니다. 혁명운동은 오직 당과 수령의 영도를 받들어 나가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혁명관을 옳게 세우기 위하여서는 언제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는 것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합니다.

혁명관을 바로 세우자면 혁명사상과 혁명이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합니다. 혁명사상과 혁명이론을 체득하여야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옳게 인식하고 혁명의 앞날을 확신성있게 내다볼 수 있으며 어떤 역경에 처하더라도 동요와 주저를 모르고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혁명관을 바로 세우자면 공산주의 혁명정신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노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끝없는 헌신성이며 혁명의 원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증오심이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혁명의 지조를 지켜 끝까지 견결히 싸우는 강인한 혁명정신입니다.

그것은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들을 용감히 이겨내며 모든 것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며 혁명조직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조직규율을 자각적으로 지키는 강한 조직성과 규율성의 정신입니다. 이러한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을 지녀야 참다운 혁명가로 될 수 있습니다.

혁명사상과 이론을 신념화하고 강의한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을 지니게 될 때 혁명관이 바로 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혁명관이 옳게 섰는가 안섰는가 하는 것은 혁명적 실천에 의하여 검증됩니다.

혁명적 실천은 사상개조의 힘있는 수단인 동시에 사람들의 사상을 검증하는 척도입니다. 실천과 행동을 떠나서는 사람들의 사상을 평가하고 검증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실천이란 곧 수령의 혁명사상,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받아들이고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사람이 혁명관이 똑바로 선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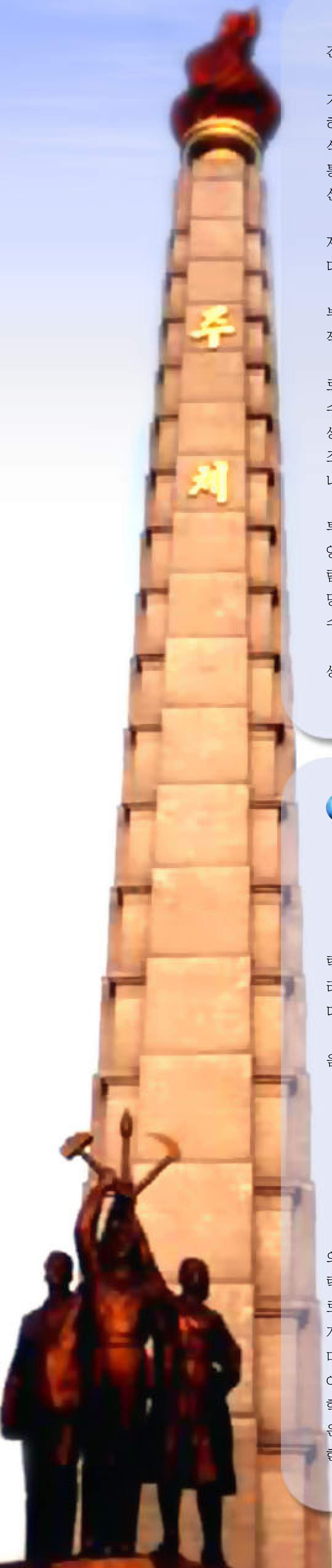
혁명관이 옳게 섰는가 안섰는가 하는 것은 특히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 뚜렷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역경에 부닥쳤을 때 진속을 드러내게 되는 법입니다. 비록 한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어도 당과 수령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려는 각오가 되어 있고 단두대에 올라서도 혁명적 지조와 절개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체의 혁명관이 튼튼히 선 참된 혁명가입니다.

혁명관이 바로 선 공산주의혁명가가 되자면 혁명적 학습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학습은 혁명사상과 이론, 전략전술로 무장하기 위한 기본방도입니다. 학습을 하지 않고서는 혁명투쟁의 진리를 체득할 수 없으며 높은 계급적 안목과 혁명적 식

➡

혁명운동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만큼 혁명과 건설에서는 반드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며 인민대중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사상개조사업,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합니다.



견을 가질 수 없습니다.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나 학습을 첫째가는 임무로 삼고 일생동안 학습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학습은 단순히 이론과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학습을 통하여 배운 혁명이론과 지식은 반드시 신념화하여야 합니다.

혁명관이 바로 선 공산주의혁명가가 되자면 혁명적 조직생활을 잘 하여야 합니다.

조직생활은 공산주의운동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혁명적 생활방식이며 혁명적 단련의 학교입니다.

조직생활을 떠나서는 사람들이 혁명가로 자랄 수 없고 정치적 생명을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부모로부터 육체적 생명을 받고 태어나지만 정치적 생명은 조직생활을 통하여 지니게 되고 빛내어 나가는 것입니다.

혁명적 조직생활은 언제나 강한 사상투쟁 속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상교양과 함께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단련되며 혁명가의 사상정신적 풍모를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언제나 혁명적 조직생활을 틀어쥐고 사상투쟁의 용광로 속에서 사람들을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단련하여야 합니다.

혁명관이 바로 선 공산주의혁명가가 되자면 혁명적 실천속에서 단련하여야 합니다.

혁명가는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사상의지적으로 단련되며 혁명가의 자질과 품격을 갖추게 됩니다.

계급투쟁은 가장 첨예한 혁명투쟁입니다. 사람들은 계급투쟁의 실천속에서 계급의식을 높이고 적아를 옳게 가릴 줄 알게 되며 계급적 원쑤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정신을 키우게 됩니다.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투쟁도 중요한 혁명투쟁입니다.

생산과 건설을 위한 실천투쟁에 적극 참가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며 참다운 노동계급의 혁명정신, 혁명적 풍모를 지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혁명적 학습과 조직생활, 혁명적 실천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관이 튼튼히 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참다운 혁명투사로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② 정치사업선행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을 교양하고 발동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합니다.

혁명과 건설은 사람들이 하는 것인만큼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성과여부는 결국 사람과의 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정치사업이며 사람들의 사상과의 사업입니다.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운다는 것은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서 인민대중을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혁명적 열의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대중자신이 높은 자각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래 혁명이란 자각적인 투쟁입니다. 혁명은 남이 시키거나 그 무슨 보수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자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혁명투쟁에서는 언제나 정치사업을 앞세워 사람들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높이는 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일 계속)

정치사전

주체사상에 대하여 (4)

로작의 이 체계에서는 다음으로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이라는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를 밝히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력사적운동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입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27페지)

주체사상의 이 원리는 사회력사적운동의 성격을 밝혀 준다. 로작은 먼저 사회력사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으로 되는 근거를 밝혔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창조자는 인민대중이며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의 창조의 력사이다. 인민대중은 창조력은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에서 가장 높이 발양된다. 문헌은 다음으로 혁명운동에서 창조성을 구현하기 위한 근본요구를 밝혔다.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인 혁명운동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지킬것을 요구한다.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지키려면 인민대중의 창조적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풀어 나가며 현실에 발을 튼튼히 붙이고 모든것을 창조적으로 대하여야 한다. 로작의 이 체계에서는 또한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라는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를 밝혔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운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32페지)

주체사상의 이 원리는 사회력사적운동의 추동력을 밝혀 준다. 로작은 먼저 사상의식,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본질과 역할을 밝혔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의식으로서 사람의 모든 행동을 규제하며 조절통제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운동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사상의식은 혁명과 건설에서 노는 사람들의 역할을 규제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사상의식은 혁명운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행동의 계급적성격과 혁명운동에서 발휘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투쟁력을 규제한다. 사상의식의 역할은 혁명운동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커지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혁명투쟁에서 비상히 높아 진다. 로작은 다음으로 혁명운동에서 의식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요구를 밝히였다. 혁명운동은 의식적인 운동인것만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는 언제나 사람들의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 쥐고 나가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서는 언제나 사상적요인에 결정적의의를 부여하고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 나가야 한다.

(내일 계속)

4. 혈전의 준비 (1)

2권 제5장

무장한 인민

1. 수난당한 대지
2. 9.18사변
3. 무장에는 무장으로
4. 혈전의 준비
5. 새 무장력의 탄생

명월구회의에서는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할 데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가 이 사업에서 선구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첫시작은 **김일성**이 떼라. 무슨 일이나 표본이 있고 시범이 있는 법이 아니냐.≫

동무들은 이런 말로 나와의 작별인사를 대신하였다.

나는 회의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다 떠날 때까지 명월구에 남아있다가 동장영과 헤어져 안도에 갔다. 유격전을 하자면 어느모로 보나 안도와 같은 고장이 좋았다.

12월 명월구회의에서도 론의된 바이지만 우리는 무장대를 조직하는데서 선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는 9.18사변 후 만주각지에서 조직된 중국의 반일무장력인 구국군과의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조직의 기본력량을 안도와 왕청에 두기로 하였다. 안도와 왕청은 구국군의 집결중심지였다.

홍륭촌에 돌아온 나는 가족들과 함께 마춘옥이네 집에 얼마간 가 있다가 소사하 토기점골 갈밭부락으로 이사하여 반일인민유격대 창건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소사하는 조직화된 부락이어서 홍륭촌보다 주변환경을 대단히 좋았다. 지하조직이 든든하게 들어박힌 이 마을에는 밀정들이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였다. 주구들이 쏠라닥거리지 않으니 군경들도 소사하에는 별로 ≪토벌≫을 오지 않았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처음부터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처음부터 여러가지 난관에 부닥치였다. 사람문제, 무기문제, 식량문제, 군중적토대문제, 구국군의 관계문제를 비롯하여 군사정치적으로 많은 난문제들이 제기되어 해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장대오를 꾸리는데서 사람과 무기를 가장 중요한 두가지의 필수적 요소로 보았다. 물론 우리한테는 이 두가지가 다 부족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군사정치적으로 준비된 인간을 말한다. 우리한테는 정치를 알고 군사를 아는 사람,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장기간 무장을 들고 싸울 준비가 되어있는 그런 청년들이 필요하였다.

우리는 한해반 사이에 조선혁명군의 골간들을 거의 다 잃어버렸다. 김혁, 김형권, 최효일, 공영, 리제우, 박차석과 같은 혁명군의 주력이 한해 사이에 모두 전사하거나 감옥행을 한데다가 1931년 1월에는 중대장으로 활약하던 리종락이마저 조선혁명군과 관련된 소책자를 가지고 무기공작을 하로 가다가 김광렬, 장소봉, 박병화와 함께 알본령사관 경찰에 체포되었다. 군사물계에 밝은 김리갑도 감옥에 끌려갔고 백신한은 전사하였다. 최창걸과 김원우는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조차 알길이 없었다.

혁명군의 나머지 력량가운데 군사경험이 있다는 대원들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정도였는데 얼마안되는 그 대원들마저도 군중정치공작에 돌리다보니 무장대오에 망라시킬 수 없었다. 내가 안도에서 유격대를 내오느라고 바쁘게 뛰어다날 때 내곁에 있는 조선혁명군 출신의 청년은 차광수 한 사람 뿐이었다.

국가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같으면 동원령이나 의무병역제와 같은 법으로 필요한 군사인원들을 손쉽게 충당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집할 수 없었다. 법적장치나 물리적 힘으로써는 대중을 혁명에 동원시키지 못한다. 한 때 상해림시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납세와 병역징발에 응할 의무를 지닌다는 조문을 헌법에 박아넣었지만 국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남의 나라 조계지 한 구석에 앉아 국권을 행사하는 망명정부의 법이나 지령이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리치이다.

식민지 민족해방혁명에서는 동원령이나 의무병역제 같은 법적 수단으로 사람들에게 총을 메울 수 없다. 이 혁명에서는 혁명을 영도하는 수령과 선각자들의 호소가 법을 대신하며 매개 사람들의 정치도덕적 자각과 전투적 열정이 참군을 결정하게 된다. 대중은 그 누구의 요구나 지령이 없어도 자기 자신의 해방을 위하여 스스로 총을 멘다. 이것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있는 인민대중의 본성적 행위이다.

우리는 이런 원리에 기초하여 안도와 그 주변에서 유격대에 망라시킬 대상들을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적위대, 소년선봉대, 로동자규찰대, 지방돌격대와 같은 반군사조직들에는 참군을 요구하는 끌끌한 청년들이 많았다. 추수, 춘황 투쟁의 폭풍속에서 반군사조직들은 급속히 확대되고 그 폭풍의 한복판에서 청년들도 몰라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대중이 참군을 요청한다고 하여 그 준비정도도 고려해 보지 않고 아무 사람이나 망탕 유격대에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동만의 청장년들은 아직 군사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유격대의 인적 원천을 확보하자면 적위대와 소년선봉대를 비롯한 반군사조직들에서 청년들에 대한 정치군사훈련을 강화해야 하였다.

그런데 내 곁에는 교련을 맡아볼 수 있는 인재가 한명도 없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안도지구의 청년들을 모조리 군사화할 수 없었다. 내 자신도 화성의숙의 물을 좀 먹었다고는 하지만 새형의 군대, 유격대를 움직이기 위한 군사실천면에서는 백지상태나 다름없었다. 책상물림인 차광수는 나보다도 군사를 더 몰랐다. 리종락이마저 감옥에 잡혀가니 이제는 기대를 가지고 쳐다볼 인물도 없게 되었다. 리종락과 같은 사람만 있으면 그에게 군사를 일임하고 나는 정치사업에 전적으로 시간을 바칠 수 있으련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안타깝기만 하였다.

어려운 고비에 처할 때마다 나는 이상하게도 매번 동지의 부족을 느끼곤 하였다.

우리가 고충을 겪고 있을 때 박훈이라고 부르는 황포군관학교 출신의 유망한 인물이 우리를 찾아왔다. 황포군관학교의 교장은 장개석이가 하였고 정치부주임은 주은래가 하였다 그 학교에 조선청년들이 많았다. 중국사람들이 광주폭동을 ≪3일쏘베트≫라고도 하는데, 이 폭동에서 주동적역할을 담당한 것이 바로 황포군관학교 학생들이었다.

박훈과 안봉은 광주폭동에 참가하였다가 폭동이 실패하자 관내에서 도망쳐나와 만주로 탈출해 온 사람들이었다. 박훈은 체격도 건장하고 언행이나 몸가짐도 무인답게 활달하였다 그는 조선말보다 중국말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조선옷보다 중국 옷을 더 자주 입고 다니었다. 이 삶이 바로 나의 ≪군사고문≫이었다.

장개석이 혁명을 배반(4월 12일 사변)한 것으로 하여 국공합작이 파괴되고 제1차 국내전쟁혁명이 실패로 막을 내린 후 남방지방으로 양림, 최용건, 오성륜(전광), 장지락, 박훈을 비롯하여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혁명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장개석의 테러를 피해 만주지방으로 많이 들어왔다.

솔직히 말하여 나는 그 때 횡포군관학교라는 교명을 듣고 박훈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

박훈은 전투장에서 권총을 량손에 하나씩 들고 쏘는 특기를 가지고 있었다. 사격솜씨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는 총을 정말 ≪귀신≫같이 쏘았다.

그가 가지고 있는 특기는 구령을 잘 치는 것이었다. 박훈은 만명이나 이만명쯤 되는 대렬도 마이크가 없이 육성으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희한한 목소리를 가진 교관이었다. 그가 토기점골등판에서 소리를 한마디 지르면 온 동네가 다 들었다.

안도의 청년들은 모두 그 구령소리에 반해서 박훈을 황홀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소리가 저쯤되면 동경판에 앉아있는 일본천황도 듣겠구만. 어디서 저런 복덩이가 굴러들었을까!≫

적위대원들의 교련을 지도하는 박훈의 모습을 보고 차광수는 이렇게 탄복하였다. 박훈에게 제일 반해서 돌아간 것이 바로 차광수였다. 두사람은 리론투쟁을 많이 하면서도 매우 친근하게 지냈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신데 대한 자료

박훈이 안도에서 훈련을 잘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한 부대는 훗날 왕청에 가서도 ≪대학생부대≫라는 평판을 들었다. 우리 부대의 유격대원들은 항일전쟁의 전행정에서 언제나 질서가 있고 규률이 째이고 언행이 점잖고 옷차림이 단정한 사람들로 존경을 받았다. 양정우도 늘 우리 혁명군의 절도있고 생기발랄하고 문화적인 면모에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때마다 나는 박훈을 생각했고 토기점골등판에서 울리던 그의 구령소리를 생각하였다.

교관으로서의 그의 자질가운데서 다음으로 이채를 띠는 것은 훈련생들에 대한 엄격한 요구성이였다. 그 비상한 요구성 때문에 훈련생들이 빠른 속도로 군사지식을 터득해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박훈은 이따금씩 대원들에게 체벌을 적용하곤 하였다. 제식동작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거나 규률을 어기는 훈련생들이 있으면 눈알을 굴리며 욕설을 퍼붓든가, 발길질을 하던가, 벌을 세우든가 하였다. 혁명군

➡

선전화
≪무기탈취≫

대내에서 체벌을 금물이라고 아무리 말해주어도 소용이 없었다.

어느날 나는 훈련 끝에 목이 쉬어서 쉑쉑하는 박훈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물었다.

≪박훈동무한테서는 어쩐지 군벌냄새가 나는구만. 어디서 그런 군벌기를 배웠소?≫

박훈은 군벌냄새라는 말에 웃음을 지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우리를 가르쳐준 교관이 아주 엄하고 독한 사람이였소. 그 독일인이 나에게 그걸 유산으로 넘겨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소. 똑똑한 군인이 되자면 어쨌든 채찍 맛을 많이 봐야지. ≫

독일식군사교육의 흔적은 박훈에게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그의 리론강의중에서 제일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이 바로 프로씨야 군대에 대한 이야기였다. 박훈은 영국병사의 용감성과 프랑스병사의 신속성, 독일병사의 정확성과 로씨야 병사의 완강성에 대해 많은 말을 하였는데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훈련생들에게 그 모든 자질을 다 소유한 만능의 군대가 되자고 호소하였다. 그가 집행하는 훈련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던 유격전의 특성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나뽈레옹식 종대대형과 영국식 일선형서렬이 무엇인가를 납득시키고 스무명이 되나마나한 훈련생들로써 그런 대형을 지어보려고 무진 애를 썼다.

교련을 참관하던 나는 휴식시간이 되자 박훈에게 조용히 말했다.

≪박훈동무, 동무가 방금 집행한 그 영국식 일선형 서렬훈련은 간단히 설명으로 굼때고 생략해버리는게 어떻소? 우리가 여기서 와떼를로 격전과 같은 전쟁을 한다면 몰라도 산악을 끼고 대포와 기관총으로 무장한 적과 당장 유격전쟁을 해야 할 판인데 그런 구시대의 병법을 배운다고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하는 거요.≫

≪전쟁을 하자면 어쨌던 그런 정도의 군사지식을 알아둬야 하지 않을가.≫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낸 일반적인 군사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장 써먹을 것부터 선택해서 배워주어야 하오. 무관학교에서 배운 것을 통채로 소화시킬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소.≫

그날 박훈에게 내가 한 말은 훈련에서 교조주의를 경계하라고 한 말이였다.

박훈에게 적위대원을 여라문명 맡기면서 사격훈련을 시키라고 했더니 하루종일 평지에다 말뚝을 세워놓고 적이 나타나면 중심하부를 쏘라는 소리만 되풀이하였다.

나는 박훈에게 보고훈련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밀어던지고 유격전쟁에 필요한 것부터 먼저 배워주어야겠다. 특히 산악전이 요구하는 훈련을 선행시켜야겠다. 우리한테 맞지 않는 것은 대담하게 뜯어고치고 교본에 없는 병법은 우리끼리 지혜를 합쳐서 하나하나 만들어내자고 하였다.

박훈은 내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였다.

그후부터 우리는 유격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기본으로 하여 훈련을 진행하였다. 초보적인 제식동작이나 무기조작법은 말할 것도 없고 위장법, 신호법, 창사용법, 적정탐지법, 산길을 타는 법, 곤봉을 다루는 법, 무기를 탈취하는 법, 야간전투시에 적아를 식별하는 법 등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군사지식부터 배워주었다. 박훈은 처음에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저것 배워주다가 나중에는 과정안을 짜가지고 계획적으로 훈련을 시키었다. 박훈은 훗날 이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자기가 황포군관학교에서 배운 군사는 모두 세계 5개 군사강국에 속하는 나라들의 것이였다. 그것은 동서고금의 병법을 집대성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군사지식이였다.

나는 현대 중국의 군사교육의 전당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유명한 황포군관학교에서 이런 지식을 배운 데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으며 동만에 와서 그것을 보급하게 되면 모두가 나에게 박수갈채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것은 오산이었다. 나는 박수갈채가 아니라 랭담한 반응에 부닥쳤다. 청년들은 나의 강의를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상식으로만 받아들이었지 사활적인 것,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지난 몇해동안 내가 섭취한 군사가 비록 세계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유격전을 위해서는 별로 쓸모가 없는 반편짜리 지식임을 통간하고는 그것을 무슨 만능의 법전처럼 절대시한 자기자신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었으며 유격전이 요구하는 군사론을 새롭게 창조해야 할 필요를 절감하게 되었다. 나는 그때부터 교조에서 벗어나 조선혁명에 적응한 우리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안도지구의 훈련도감들 가운데서 박훈 다음으로 이채를 띤 인물은 김일룡이었다. 그는 박훈과 같이 현대전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었으나 독립군에서 싸울 때 터득한 실전경험을 가지고 대원들을 꾸준히 훈련시키었다. 적위대와 소년선봉대, 소년탐험대를 비롯한 반군사조직들의 훈련을 강화하고 대렬을 확대하는 과정을 통하여 정치군사적으로 준비된 견실한 청년들이 우리의 주위에 수십명 집결되었다. 우리는 두만강연안의 여러 현들에 나가서 사업하던 동지들과 추수, 춘황투쟁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청년들을 선발하여 안도로 모이게 하였다. 안도, 돈화를 비롯한 동만각지에서 많은 청년들이 우리한테로 찾아왔다.

우리는 그런 청년들 가운데서 차광수, 김일룡, 박훈, 김철, 래영배를 비롯한 18명의 핵심을 골라 그들로써 먼저 유격대소조를 조직하였다. 이와 함께 연길, 왕청, 화룡, 훈춘 지방에서도 같은 형태의 무장대오를 꾸리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현마다 10-20명 안팎의 인원으로 되는 무장대들이 꼬리를 물고 태어나게 되었다. 적은 인원으로 무장대를 꾸려가지고 대렬을 늘이다가 일단 조건이 성숙되면 매개 현별로 대규모의 무장대오를 꾸리자는 것이 명월구회의에서 토의결정된 방침이었다.

유격대소조를 내오는 과정은 무장을 해결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을 동반하였다.

곤란하다 곤란하다 하여도 무기를 해결하는 일처럼 그렇게 큰 난관은 없었다.

일제침략군은 본토의 군수산업이 계렬식으로 생산해내는 현대적인 무기와 장비들로 륙해공군의 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무기를 대줄 국가적 후방도 없었고 총도 한자루 사올 돈도 없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포도 아니었고 땅크도 아니었다. 당장은 보총이나 권총, 수류탄과 같은 경무기만 있으면 되었다. 국내에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으면 로동계급의 힘을 빌어서라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우리 나라에는 그런 공장이 없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자신을 무장하는 데서 자기 나라 공업의 덕을 하나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 ≪적의 무기를 빼앗아 자체를 무장하자!≫는 비장한 구호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안도에 돌아오자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맡겼던 두자루의 권총을 땅속에서 파냈다. 그 두자루를 쳐들고 동무들에게 말했다.

≪자, 이것이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유산이다. 아버지는 의병도 아니고 독립군도 아니었지만 세상을 떠나시는 날까지 이 총을 가지고 있었다. 왜? 무장투쟁이야말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 수 있는 최고의 투쟁형태라고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총적인 지향은 무장투쟁을 하자는 것이었다. 나는 이 두자루의 권총을 물려받을 때 아버지가 지향했던 것을 내가 대신하여 실현시키고야말리라는 결심을 굳게 다지였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 두자를 밑천으로 삼아 독립행군을 시작해보자. 지금은 이 두자루가 전부이지만 이것이 새끼를 치고 또 쳐서 200자루, 2000자루, 20000자루로 될 날을 생각해보라. 총 2000자루만 있으면 능히 나라를 해방할 수 있다. 밑천이 있으니 이것을 자꾸 굴려 2000자루가 20000자루가 되게 하자!≫

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나도 일찍이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 생각에 목이 메여 더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무기를 얻는 문제가 일정에 오르자 박훈은 나에게 소문을 들으니 무송에서 어떤 부자집 자식이 당신네한테 총 수십자루를 희사한 일이 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였는가고 물었다. 그가 말하는 무송의 부잣집 자식이란 장울화를 말한다. 우리가 오가자에서 활동할 대 그는 자기 집 가병들의 총 40자루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 우리는 그때 그 총을 조선혁명군 대원들에게 모조리 나누어주었다. 박훈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몹시 아쉬워하면서 출로는 돈에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가 꾸려놓은 혁명촌들을 돌아다니며 농민들에게 호소하여 돈을 모아보자고 제기하였다.

우리는 그의 제의를 따르지 않았다. 부자들에게 호소하여 자금을 뽑아낸다면 몰라도 가난한 로동자, 농민의 주머니를 털어 무기를 산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목숨을 내대고 총을 탈취하는 것보다 돈을 모으는 일이 훨씬 쉬울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쉬운길을 버리고 어려운 길을 택하였다. 나는 돈을 주고 총을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인정하였지만 그것을 그닥 장려하지는 않았다. 농민들에게 돈을 내라고 손을 내미는 것은 독립군의 식이었지 우리 식이 아니었다. 설사 돈을 모았대야 그것은 큰 밑천으로 될 수도 없었다. 언제인가 최현동무는 산림터에 가서 기관총 한자루를 1500원에 사온 일이 있다. 소 한짝에 50원씩 하던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셈하면 소 30마리정도 팔아야 기관총 한자루를 살 수 있다는 답이 나온다. 우리는 이 숫자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토론을 거듭하던 끝에 내도산쪽에 가서 독립군들이 묻어놓은 총을 몇자루 파왔다. 다른 현들에서도 독립군들이 사용하던 무기를 경쟁적으로 회수하였다. 홍범도 휘하의 독립군은 청산리전투 후 많은 량의 총과 탄알을 대감자 일대에 묻어버리고 쏘만국경으로 퇴각하였다. 밀정을 통하여 이 사실을 내탐한 일본수비대가 자동차 수십대를 가지고 와서 그 총과 탄알들을 무데기로 실어갔다.

명월구회의가 있은 다음 왕청동무들은 대감자에 사람들을 파견하여 일본수비대원들이 파헤치고 갔던 자리에서 근 5만발의 탄알을 회수하였다. 수중에 몇자루의 총이 생기자 우리는 그것을 밑천으로 하여 적의 무장을 탈취하기 위한 직접적인 전투행동에로 넘어갔다.

(계속)

일화

장군님께서 백두산에 오르시는 까닭

1972년 5월이였습니다. 계절은 신록이 우거지는 봄이였지만 고산지대인 양강도, 특히 백두산일대는 아직도 겨울이였습니다.

이 지방을 현지지도하고 계시던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눈보라 울부짖는 어느날 백두산에 오르시려 길을 떠나셨습니다.

자동차가 무두봉을 지나 대연지봉기슭을 끼고 달릴 때 별안간 백두산마루쪽에서 쏴-하고 요란한 바람소리가 나더니 눈보라가 타래쳐와 한치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자동차는 겨우 눈 속을 빠져나왔으나 얼마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백두교를 지나서부터는 눈이 허리를 넘게 쌓여있어 자동차길이 아예 막혀버린데다가 눈바람이 아까보다 더욱 이악스레 기승을 부렸기 때문이였습니다.

일행이 차에서 내려 눈을 헤가르며 몇걸음 걸어갔을 때였습니다.

바람이 광목찢는 듯한 아츠러운 소리를 지르더니 눈산을 움씰움씰 밀고 일행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얼마후이면 위험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일꾼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위험합니다. 돌아갑시다.≫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태연자약하게 일꾼들은 보시며

≪생각해보시오, ≪고난의 행군≫때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렇지도 않소. 자, 또 갑시다.≫

라고 격려하시고 앞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일꾼들은 장군님의 앞을 성벽처럼 막아서며 더는 가시지 못한다고, 훗날 날씨가 좋은 때에 올라가시자고 애원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일꾼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무들은 왜 그리도 내 마음을 몰라줍니까. 내가 왜 이런날에 백두산에 오르려고 하는지 압니까?

백두의 혁명정신이 어떤 간고한 시련 속에서 이루어졌는가를 마음속으로 나마 더 깊이 체득해보기 위해서요.

이렇게 백두의 사나운 눈보라와 맞서도 보고 험한 눈길도 헤쳐보면서 ≪고난의 행군≫길을 돌이켜보아야 조선혁명이 어떤 혈로를 헤쳐왔는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고 또 앞으로 우리 혁명의 앞길에 중중첩첩 산악이 막아서도 쉬이 넘을 수 있는거요. 우리는 혁명의 먼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들이 아니요.

혁명의 먼길을 변함없이 걷자면 지난날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오. 자, 백두산정으로 오릅시다.≫

그제야 일꾼들은 장군님께서 눈보라 울부짖는 날에 백두산으로 오르시는 까닭이 헤아려져 저절로 고개가 수그러지고 목에 뜨거운 것이 치밀어올랐습니다.

그들은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그분앞에 길을 내드렸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근엄한 안색으로 백두산정을 향하여 한걸음 한걸음 길을 톺으셨습니다.

이렇듯 장군님께서는 백두산의 울부짖는 눈보라 속에서 항일혁명투사들이 **김일성**주석님을 모시고 조국진군의 혈로를 헤친 그 ≪고난의 행군≫을 돌이켜보면서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싸운 그 투쟁정신, 꺾이면 꺾일지언정 주체혁명위업에 대한 신념은 버리지 않는 그 혁명정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풍파사납고 시련에 찬 혁명의 길을 대를 이어 꿋꿋이 헤쳐나가시려는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려고 지동치며 태질하는 눈바람을 헤쳐 백두산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송시

지금은 봄이다

최혁진

지금은 봄이다
아지랑이 피어나던 *****
시냇물도 도란도란 속삭이는
봄, 봄이다
계절이 싣고 왔나
어느샌가 ***들어 사람들의 가슴 묻어오는 그 손길
오랫동안 응어리진 설움의 덩어리를
순시간에 녹여버리는 그 손길
해마다 봄이 와도 녹지 않던 분단의 얼음땅에
평양에서 *** 6.15남북공동선언
그 봄발 뜨거운 빛발아래
서서히 녹아난다
지금 이 땅의 봄은 6월 선언이 싣고 오는 봄
보라 그 봄길따라 남북으로 오가는 발걸음들에
따뜻한 봄바람 일고 있지 않은가
반세기 세월 넘어 부둥켜안는 혈육의 더운 숨결에서
봄내음 짙어가지 않는가
그 봄빛 아래 하늘길, 바닷길, 땅길이 열리고
그 봄빛을 안고 서울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서울로
큰물의 은물결로 흐르고
따뜻한 봄
뜻깊은 새 세기의 첫 봄
******* 힘과 지혜 모두 모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 맹세가 불타는
통일의 봄날
나는 본다
*** 믿음을 안겨주신분 정녕 누구이신가
겨레와 민족을 제일로 사랑하시어
찬바람, 눈비를 다 맞으시는
한품에 안아 봄을 가꿔주신 그분
따뜻한 봄햇살을 우러르는 모두의 가슴가슴엔
김정일장군님 자애로운 영상은
그분
아 그분은
영원한 민중사랑의 꿈을 꽃펴주시는
통일강성대국의 찬란한 태양이시여

흠모

김일성주석께서 세우신 독특한 조선의 사회주의 제도는 오늘 **김정일**비서의 영도 밑에 더욱 강화 발전되고 있다

덴마크공동위업노동당 집행위원회 위원이며 비서인 이브 야곱슨을 단장으로 하는 이당 대표단성원들이 귀국함에 앞서 기자와 회견하였다.

그들은 우리 나라 방문인상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우리 인민이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제도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비록 길지 않은 체류기간이지만 우리 대표단 성원들은 평양과 지방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귀국의 사회제도가 진정 인민을 위한 사회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었다. 조선에서는 인민을 위한 정치가 실시되고 있으며 인민은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들을 크게 감동시켰다.

조선의 사회주의 제도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세우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그 기치밑에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 조선의 해방을 이룩하시었으며 미제를 쳐부시고 나라의 존엄을 수호하시었다.

김일성주석께서 세우신 독특한 조선의 사회주의 제도는 오늘 **김정일**비서의 영도 밑에 더욱 강화 발전되고 있다. **김정일**비서께서는 언제나 인민대중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당과 국가 사업전반을 현명하게 영도하고 계신다.

오늘 조선노동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이라는 구호를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최근 평양에는 5만 세대의 살림집의 일떠서 인민들에게 크나큰 기쁨을 주었다. 우리는 평양산원과 여러 문화시설들을 돌아보면서도 당과 국가에서 인민들에게 돌려주는 배려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느낄 수 있었다.

참으로 조선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민적 정치는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안겨 주었다. 우리는 특히 조선의 현실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당의 영도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체득하게 되었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비서의 현명한 영도는 조선의 빛나는 현실을 낳게 하였다. 그분들께서는 당을 강화하고 당의 두리에 광범한 대중을 통일 단결시키시어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아가고 계신다.

지금 일부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가 좌절되었지만 위대한 영도자들이 계시기에 조선에서는 사회주의 위업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고무로 되고 있다.

단원 올레 빈 핸둘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의 사회주의 제도하에서는 근로대중의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고 있다. 그들은 누구나 국가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직업에 대한 걱정, 치료받을 걱정, 배울 걱정을 모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이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기고 억압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귀국에서는 또한 인민적인 문화와 도덕 생활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다. 인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가 실시되고 있는 귀국사회의 이 모든 것은 세상에 자랑할만한 것이다.

대표단 성원들은 또한 조선노동당과 덴마크공동위업노동당 사이의 친선관계가 날을 따라 더욱 발전하고 있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굳은 연대성을 표시하였다.

6.15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거는 자들에겐 앞길이 없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미일상전들의 환심을 사서 대통령의 자리를 따보려고 동분서주하면서 나라와 민족 앞에 죄악을 덧쌓고 있다. 미국에 이어 지난 3월11일 일본에 가서도 그는 천추에 용납못할 반역행위를 저질렀다.

이회창은 일본기자구락부에서 6.15공동선언이 이행되지 않고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고향방문이 중단되고 있는 책임이 북에 있는 듯이 허튼 소리를 줴쳤다. 그는 ≪신뢰성≫에 대해 운운하면서 존엄있는 이북의 정치체제까지 걸고드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일본상전에게 ≪북의 대량살상무기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하며 ≪동아시아국가간, 다자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등으로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감히 동족을 해쳐보려는 흉악한 속심을 드러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월 방미과정에서 통일지향의 민족감정을 건드림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으로 된 호전광 부시의 ≪악의 축≫망발을 적극 지지하는 쓸개빠진 짓도 하였다. 이 모든 험담들은 민족반역자, 친미친일 2중주구로서의 이회창의 더러운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놓은 것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남북사이의 대결과 불화를 조장하며 동족을 모해하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이회창의 고약한 악습이다.

온 민족과 세계가 적극 지지환영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처음부터 반대하고 6.15공동선언을 갖은 악담과 시비질로 긁어내리며 ≪상호주의≫니, ≪검증≫이니, ≪투명성≫이니 하고 그 이행에 제동을 거는 자도 다름아닌 이회창이다.

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남북사이에는 여러차례에 걸쳐 장관급회담이 개최되었고 고향방문단교환사업도 3차례나 실현되었다. 그외에도 민족의 단합과 자주, 통일에로 움직이는 우리 민족의 장엄한 흐름을 온 세계가 경탄의 눈으로 쳐다봤다.

민족의 단합과 자주통일에 유리하게 흐르던 한반도의 정세는 미국에서 호전광 부시의 집권과 그의 대북적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일시에 대결과 전쟁분위기로 바뀌었다.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부시는 애당초 공동선언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미제는 이 땅을 영구강점하고 그곳을 발판으로 한반도와 나아가서 아시아를 거머쥐려는 침략적인 야망으로부터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극력 반대하면서 이북에 대해서는 강경고립압살정책을 실시하고 김대중정권에 대해서는 ≪남북관계가 지내 빨리 간다≫느니, ≪속도를 조절≫하라느니, 미국의 승인하에서만 ≪북과 관계를 가지라≫느니 하고 강박했다. 오늘 6.15공동선언이 민족의 의사와 염원에 맞게 이행되지 못하고 남북사이의 모든 교류와 협력이 차단되어 있는 것은 호전적인 부시행정부의 대북고립압살책동때문이다.

이회창이 한쪼각의 민족적 양심이라도 있고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마음이 티끌만큼이라도 있다면 응당 공동선언이행을 악랄하게 반대하는 미국에 항의해야 옳았다.

그런데 그는 공동선언을 유린말살하려는 미국을 추어주면서 공동선언이행을 위한 당사자의 대방인 이북을 악의에 차서 헐뜯었다. 심지어 이자는 지난 1월 부시행정부의 강경매파들을 찾아다니면서 동족을 모해압살해 줄 것을 청탁했는가 하면 미국의 대북전쟁책동에 맞장구를 치며 북을 악랄하게 중상모독해 나서기까지 하였다. 이것은 그가 공동선언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오직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집행의 하수인으로 발벗고 나섰다는 것을 말해 준다.

최근에 북을 겨냥한 미국의 핵태세보고서로 말미암아 핵전쟁위험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때에 이회창이 일본을 방문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통일을 외면하고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아부한 것도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팔고 반북열을 올린 대가로 제2의 상전의 지지를 얻어 권력의 자리를 차지해 보려는 비열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회창은 국민들 속에서 확산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위협 ≪악의 제국≫ 미국에 대한 분노, 미국과 공조하여 한반도전쟁위협에 혈안이 되고 있는 일본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오늘 미국호전세력들의 무모한 반북책동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정세는 또다시 위험천만한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다.

전쟁이냐 평화냐, 민족의 파멸이냐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느냐 하는 이 준엄한 시각에 미국의 전쟁책동에 맞장구를 치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더 큰 반역은 없다. 이회창과 같은 사대매국노, 민족반역자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자주도, 민주도, 통일도 실현할 수 없고 민족재난을 면할 수 없다.

애국적인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주단체들은 민족반역자 이회창을 정계에서 제거해 버리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을 민족내에서 매장해버려야 할 것이다.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길로 매진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으로 단결된 우리 민족의 거세찬 통일대행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역사적 대세로 되고 있다. 6.15공동선언의 이행에 제동을 거는 자들에겐 앞길이 없고 민족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만 안겨질 것이다.

김광철 - 구국전선
주체91, 4월 1일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4월 3일

이회창은 ≪악의 뿌리≫ ≪바른소리센타≫ 여론조사

국민의 절대다수가 이회창을 ≪악의 뿌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론조사단체인 ≪바른소리센타≫는 지난달 25일부터 3일간에 걸쳐 각계 각층의 성인남녀 1270명을 상대로 ≪부시를 ≪악의 화신≫이라고 한다면 이회창은 무엇이라 불러야 옳은가≫라는 물음으로 전화를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5.4%가 이회창을 가리켜 ≪악의 뿌리≫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써 부시가 국정연설에서 ≪악의 축≫발언을 하게 된데는 이회창의 충동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응답자들은 이회창이 방미때 미행정부의 고위당국자들을 만나 이북을 ≪악의 국가≫라고 험담하며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대북강경정책의 도수를 한층 더 높여줄 것을 손발이 닳도록 빌었는데 이를 전해듣고 부시가 연설문에 ≪악의 축≫이라는 문구를 직접 적어 넣었다면서 이회창은 ≪악의 뿌리≫가 분명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다음 이유로 이회창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악화시키는 화근, 한반도에 화의 씨를 뿌리는 악마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 근거로는 이회창이 6.15공동선언을 반대하고 상호주의니 뭐니하며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 미국행각때에는 북의 미사일문제와 대량살상무기개발문제 등을 거론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북미대화를 하지 말 것을 미고위당국자들에게 간청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이회창이 대통령병에 걸린 나머지 정국을 혼란속에 몰아넣고 있는 장본인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이같은 점들을 이유로 들면서 ≪악의 뿌리≫ 이회창을 하루빨리 제거해야한다고 일치하게 주장했습니다.

미군부대 헬기소음피해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미군부대 인근 주민들이 헬기소음으로 건강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31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춘천시 의회 미군부대대책위원회와 함께 조사한 건강실태보고서에 따르면 근화동 주민들은 소음을 비롯해 스트레스, 정신심리, 청력 등에서 모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걸쳐 근화동 주민 83명과 미군부대에서 멀리 떨어진 춘천 효자동 주민 57명을 대조군으로 설정해 이루어졌습니다.

조사결과 근화동 주민들은 헬기이착륙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효자동 주민들에 비해 짜증이 나거나 업무가 중단된다는 등의 피해를 봤다는 응답률이 2배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스트레스수준도 효자동 42점보다 높은 56.7점으로 측정됐으며 정신심리적 이상현상도 효자동에 비해 4.7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근화동 주민들은 대다수 높은 주파수의 영향으로 청력상태가 현저하게 나빠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인 춘천시민연대측은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미군부대를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주체사상토론회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을 맞으며 전국주체사상토론회가 2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최태복비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부위원장이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20세기를 빛내이신 주체의 태양≫, ≪주체사상은 이민위천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위력한 무기≫,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인류의 앞길을 밝히시는 21세기의 태양≫ 등 제목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연사들은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인류사상사에 최고봉을 이루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민중의 운명개척을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주시고 이를 혁명실천에 전면적으로 구현하시어 20세기 조선혁명과 세계 자주화위업수행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셨다고 말했습니다. 연사들은 또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위대한 주석님의 혁명사상과 그 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시고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사상이론활동으로 주체사상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고 우리 시대의 지도사상, 혁명철학으로 완성하시었으며 오늘의 준엄한 시련속에서 위대한 선군정치방식을 창시하시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과 인류의 자주위업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데 대해 강조했습니다.

연사들은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진 조선혁명의 전노정은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정당성, 불패의 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주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깊이 있게 해설하고 논증했습니다.

자주통일운동을 힘차게 벌여나가자

지금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을 비롯해서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층 민중들이 자주통일운동을 힘차게 벌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미흡하다고 할겁니다. 부시호전집단의 대북강경압살책동으로 이 땅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밀려오고 조국통일운동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현실은 자주통일운동을 전국민적으로 힘차게 벌일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할겁니다.

그럼 이번엔 ≪자주통일운동을 힘차게 벌여나가자≫ 이런 제목으로 임기수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을 비롯해서 각계층 민중은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부산경남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부경총련) 대의원들은 ≪민족자주 기치 높이 6.15공동선언 들고 자주통일로 달려가자≫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성명에서 이남 민중은 지난 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미국놈들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이 땅의 진정한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진리를 체득하게 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통일의 완성은 미국이라는 외세를 몰아냈을 때에만 가능하며 민족자주의 기치높이 미국을 철저히 배격하지 않고서는 공동선언의 이행의 길이 순탄치 않음을 현실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6.15공동선언을 통일의 이정표로 삼고 있는 7천만 겨레의 조국통일전도는 양양하다고 하면서 현시기 6.15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의 길은 민족자주의 실현에 있다고 강조하고 언제나 조국의 자주민주통일투쟁의 진두에 자신의 한몸을 아끼지 않고 나섰던 우리 부경총련 청춘들은 올해 6.15공동선언 기치 높이 민족자주의 전면실현과 자주통일에로 총진군해 나갈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런가하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 보안법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등 단체회원들과 서총련소속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탑골공원앞에서 ≪친미반통일세력청산과 6.15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2002투쟁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집회에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공동대표들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과 함께 친미반통일세력을 청산하여 민족자주통일을 앞당길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북에 대한 적대시정책과 이남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공동선언의 이행을 파탄시키려는 미국을 규탄하고 이를 반대해 투쟁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투쟁은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성스러운 민족자주통일운동입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로 분단 50여년만에 처음으로 남북사이에 민족적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의 분위기가 고조되었으며 이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커다란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습니다. 6.15공동선언이행과정을 통해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주인인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외세에 의존함이 없이 얼마든지 자신의 역량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으며 민족의 자주통일운동은 더욱 힘차게 전개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부시정권의 출범으로 6.15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이 걸리고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에로 치닫게 됐으며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커다란 난관이 가로놓이게 됐습니다.

미국의 반통일책동을 분쇄하지 않고서는 6.15남북공동선언 이행도 조국통일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6.15공동선언이행을 차단하고 남북사이의 대결을 조장하며 민족의 분열을 영구화하려는 미국의 반통일책동을 반대배격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야 할겁니다.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의 힘으로 조국의 자주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국민의 일치한 요구이며 6.15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여기에 민족의 자주통일을 이룩하는 길이 있습니다.

각계층 민중은 6.15공동선언을 반대하고 그 이행을 방해하는 외세의 그 어떤 사소한 요소도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모든 지혜와 힘을 합쳐 공동선언이행에 헌신해야 합니다. 당면해서는 6.15공동선언에 배치되게 북침을 목적으로 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려는 미국의 침략전쟁책동과 북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계획한 핵전쟁기도를 분쇄하기 위한 반전반핵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야 할겁니다.

민족의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미국의 반통일책동에 추종해서 부시정권의 대북적대시정책과 반북고립압살책동을 극구 찬양하고 남북관계개선을 반대하며 북을 걸고드는 언동을 거리낌없이 자행하는 이회창과 우익보수세력의 반통일반북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강력하게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조국통일의 걸림돌로 되고 있는 북에 대한 ≪주적론≫철회,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도 줄기차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조국의 자주통일은 어느 개별적 단체나 개인의 힘으로 결코 실현할 수 없는 전민족적인 위업이며 우리 민족앞에 부과된 성스러운 투쟁과제입니다. 민족의 분열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단체, 모든 국민들은 하나로 굳게 뭉쳐 서로 연대연합하고 공동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단결은 힘이고 힘은 투쟁승리의 원천입니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민중은 6.15공동선언의 기치하에 굳게 단합해서 내외분열주의자들의 반통일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하게 벌여나감으로써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 실현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해야 할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일~3일

민족대단합의 장 ≪아리랑≫축제

≪아리랑≫대축전이 막을 올리게 될 날이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다.

온 겨레의 커다란 관심 속에서 4월에 막을 올리게 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 하루하루 다가옴에 따라 이남의 민심은 평양축제장으로 쏠리고 있다.

≪아리랑≫은 ≪비길데 없이 아름답고 민족적인 색체가 짙은 작품≫,≪≪아리랑≫을 볼 기회를 놓치면 일생을 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민심추향이다.

북은 ≪아리랑≫축전준비를 오래전부터 성실히 해왔다. ≪아리랑≫의 출연자들은 공연준비를 위해 연일 맹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작품은 이념과 체제선전이 아니라 민족의 같음과 하나됨을 형상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남북해외의 화해와 단합, 통일열기를 고조시키는 민족대단결의 장으로 되리라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바 없다.

현시기 우리 7천만 겨레 앞에 나선 선차적인 과제는 6.15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한핏줄, 같은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한강토위에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는 단일민족이다. 그러한 민족이 외세에 의해 분열되었고 장장 반세기에 걸쳐 남과 북에는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남과 북이 서로 자기의 이념과 체제를 대방에 강요하거나 선전만 하려고 한다면 언제가도 민족적 단합과 하나가 되는 통일을 이룩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북이 준비하고 있는 이념과 체제선전이 아닌 민족의 같음과 하나됨을 형상하고 있는 ≪아리랑≫축전은 그 의미가 실로 크고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민족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마땅할 줄로 안다.

이동국 - 구국전선
주체91, 4월 1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자

로동신문 사설 - 주체91, 4월 2일

뜻 깊은 태양절이 다가오는 지금 온 나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열화 같은 경모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 번지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과도 같은 모습이 그리울수록 수령님께서 생전에 주신 유훈을 심장에 새기며 영원히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 따라 충성의 한길을 가고 가리라는 맹세를 굳게 다지는것은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한결 같은 심정이다.

세기가 바뀌고 해가 갈수록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우리의 신념은 더욱 굳세여 지고 있으며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심화시켜 나갈 불 타는 의지는 천백배로 억세여 지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백년이고 천년이고 대대손손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셔야 하며 모든 사업을 수령님식대로 해나가야 합니다.≫

수령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혁명하는 인민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에게 남기신 유훈에는 다진 맹세 변치 말고 영원히 혁명에 충실할것을 바라시는 크나큰 믿음과 기대, 당의 령도를 받들어 반드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간곡한 당부가 어리여 있다. 수령에 의하여 참다운 생을 받아 안고 행복을 누려 온 인민들에게 있어서 수령의 유훈을 실현하는 투쟁에 한몸 바치는것보다 숭고한 도덕적의무는 없다.

우리 인민은 자기 수령의 유훈에 끝없이 충직한 인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존해 계셨을 때는 물론 오늘도 수령님에 대한 변함 없는 충성심을 높이 발휘하고 있는 우리 인민의 모습은 지금 세상사람들의 커다란 경탄을 자아내고 있다. 세상에는 우리 인민처럼 수령을 영원토록 진심으로 받들고 수령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는 인민은 없다.

이 땅우에 엄혹한 시련과 난관이 덮쳐든 20세기 마지막년대는 주체혁명위업을 계승해 나가는데서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 막는 역경도 사상최악의것이였고 우리가 겪어야 했던 시련도 형언할수 없이 컸다.

하지만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을 전진시켜 나가는 길에서 단 한걸음도 물러 서지 않았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심장에 깊이 새기고 참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오직 수령님의 뜻대로, 수령님식으로 영웅적투쟁을 벌려 나갔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유산인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강성대국건설의 돌파구를 과감히 열어 제낀것은 우리 인민이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생전의 념원과 구상이 실현되여 가는 오늘의 빛나는 현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 백두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력사의 폭풍우를 뚫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대로 주체조선의 빛나는 승리의 력사를 굿굿이 이어 놓으신것이야말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국과 력사앞에 이룩하신 불멸의 위대한 업적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가 있는 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대로 반드시 조국통일과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이 우리 인민이 실생활을 통하여 체득한 진리이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을 전면적으로 완성하는 새로운 력사적시대에 들어 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키워 주신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기상, 수령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김일성**조선의 무한한 국력을 만천하에 과시하여야 할 오늘의 시대적과제는 대단히 무겁고 방대하다.

우리는 강성대국건설의 총 진군이 힘차게 다그쳐 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의 념원과 구상을 이 땅우에 더욱 활짝 꽃 피우기 위한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더욱 철저히 관철해 나가는것은 수령님의 력사가 세기를 이어 영원히 흐르게 하기 위한 더없이 성스럽고 숭고한 투쟁이다.

5천년의 우리 민족사에서 20세기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세기로 빛나고 있다.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모시여 사회주의강국으로 빛을 뿌리는 오늘의 조선이 있고 인간의 참다운 행복을 누려 가는 우리 인민의 값 높은 존엄과 긍지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를 천세만세 영원히 이어 가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며 우리 인민의 열화와 같은 지향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념원과 구상을 꽃 피우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 나갈 때 우리 수령님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서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며 우리 조국의 력사는 변함없이 수령님의 력사로 빛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 관철을 위한 투쟁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는것은 이 땅우에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워 수령님의 생전의 념원과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는 보람찬 투쟁이다.

강성대국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한생의 념원이였으며 수령님의 위대한 한생은 곧 조국번영을 위한 불면불휴의 로고의 력사이다. 우리 조국의 그 어디를 가보아도 인민의 행복을 위해 걷고 걸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 져 있고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그 어느 부문에나 수령님께서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비범한 사색과 끊임 없는 혁명실천과정에 밝혀 주신 고귀한 지침들이 있다.

강성대국건설의 구호를 높이 드시고 군대와 인민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도 위대한 수령님의 념원과 구상을 하루빨리 이 땅우에 꽃 피우시려는데 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삶의 확고한 좌우명으로 간직하고 투쟁해 나갈 때 수령님의 생전의 념원과 구상이 꽃 펴나는 강성대국의 미래가 하루빨리 앞당겨 지게 될것이다.

아흔번째로 맞이하는 올해의 뜻 깊은 4월 15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빛내이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의의 깊은 계기로 된다.

해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기념일을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새로운 비약과 기적으로 빛내여 온것은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우리는 이 전통을 이어 뜻 깊은 올해에 수령님의 유훈 관철을 위한 투쟁을 한계단 더욱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전 인민적감정이 온 사회에 꽉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20세기가 낳은 가장 걸출한 수령이시며 천만년이 흘러도 변함 없을 우리 인민의 영원한 수령, 우리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이 준엄한 폭풍우를 뚫고 승승장구하는 오늘의 거창한 현실을 통하여 오늘도 래일도 우리는 수령님과 함께 살며 투쟁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여야 한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의 환경이 변화될수록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의 영원한 진리성과 불멸의 생명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을 백배천배로 다져 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의 수령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 주신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시다. 우리는 언제어디서나 경애하는 장군님처럼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모시는 숭고한 도덕의리의 체현자가 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 위하여서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 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일군들과 인민들에게 가장 절절히 당부하신것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잘 받들어야 한다는것이다. 끊임 없는 전선시찰과 현지지도의 길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혀 주시는 투쟁

➡

과업과 방도에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지름길이 있다. 라남의 현실이 보여 주는것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의 뜻을 현실로 꽃 피워 나가는 단위들에는 반드시 열렬한 숭배심과 투철한 결사관철의 각오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드는 참된 충신들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대로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 무적필승의 무기인 일심단결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쳐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르는 길이 곧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는 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장군님의 령도를 결사의 정신으로 높이 받들어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켜야 한다.

수십성상 조선혁명을 령도하여 오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수많은 가르치심은 강성대국건설의 귀중한 지침들이다. 정치, 군사,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부문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주신 교시가운데서 이미 관철한것과 일관하게 틀어 쥐고 나가야 할것을 따져 보고 이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틀어 쥐고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최대의 념원은 우리 인민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 사는 인민으로 되게 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를 소집하시고 사회주의경제발전의 앞길을 밝혀 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하신 모습은 오늘도 우리의 심장속에 뜨겁게 새겨 져 있다.

우리는 누구나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 오기 위해 몸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경공업공장들을 비롯한 인민생활에 복무하는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적기술로 개건하고 생산능력을 개선하여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여야 한다. 최근 우리 당은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인민생활을 위하여 귀중한 자금을 들여 전국도처에 닭공장, 메기공장, 기초식품공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생산기지들을 꾸려 놓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을 이 땅우에 활짝 꽃 피워 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대로 이 생산기지들에 만부하를 걸어 우리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덕을 주게 하여야 한다. 농업부문에서는 올해의 농업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함으로써 한평생 험한 포전길을 걸으신 우리 수령님의 령도업적이 더욱 빛이 나게 하여야 한다.

라남로동계급이 추켜 든 봉화는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사생결단의 각오와 의지로 떨쳐 나설 때 점령 못할 목표가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라남의 봉화를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를 비롯한 공업부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우리 경제토대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양시켜 뜻 깊은 태양절을 새로운 생산적앙양으로 빛내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지도일군들에게 달려 있다.

우리의 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을 받아 안으며 자라난 혁명의 지휘성원답게 수령님의 유훈 관철에서 앞장 서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완전히 정통하고 모든 사색과 실천을 수령님의 유훈관철에 철저히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 지난 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 관철에서 이룩된 성과를 총화한데 기초하여 새 세기의 현실,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이에서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을 펼쳐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떠밀줄 아는 강한 장악력과 통제력, 풍부한 실력과 완강한 집행력을 지닌 일군이 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0돐을 맞으며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 있게 벌려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깊이 심어 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길이 곧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들어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길임을 똑바로 알려 주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유훈관철에 한결같이 떨쳐 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이 우리의 앞길을 환히 밝히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기에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 따라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김일성**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자.

(끝)

우리 인민의 고상한 도덕생활기풍을 활짝 꽃 피우자 (1)

로동신문 론설 - 주체91, 4월 3일

우리 사회는 아름답고 고상한 사회주의도덕이 지배하는 건전하고 생기발랄한 사회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인덕정치아래 모든 사람들이 순결한 량심과 도덕의리심을 안고 강성대국건설에 헌신하는 숭고한 정신도덕적풍모가 활짝 꽃 펴나고 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어버이로 모신 화목한 대가정의 고상한 도덕기풍을 발양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힘 있게 과시하고 선군시대를 끝없이 빛내여 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온 사회에 공산주의적도덕기풍을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는데 따라 도덕교양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찍부터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도덕교양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여기에 커다란 힘을 기울이시였다.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를 비롯한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고 사회주의건설을 이끄시는 전 기간 도덕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사상과 신념이 강할뿐아니라 순결한 량심과 고상한 도덕의리를 지닌 혁명적인민으로 자라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도덕교양을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고리로 내세우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높은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닌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오시였다.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혁명적도덕의리의 최고귀감을 보여 주시고 우리 인민을 수령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사회와 집단, 혁명동지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숭고한 도덕의리의 소유자로 키워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는 이 땅우에 혁명적도덕의리의 화원이 활짝 꽃 펴나게 하였다.

오늘 위대한 령도자를 어버이로 높이 모신 우리 사회에서는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그리고 따르는 고결한 풍모가 높이 발휘되고 있으며 집단과 동지들을 위하여 피와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고 혁명선배와 스승을 존대하고 사람들사이에 서로 돕고 이끄는 아름다운 미풍이 끊임없이 꽃 펴나고 있다.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수 없는 우리 인민의 이 숭고한 정신도덕적풍모는 우리 당의 혁명적인 도덕교양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선군기치 따라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는 격동적인 시대에 살며 투쟁하고 있다.

인민군대의 혁명적인 사상과 정신, 도덕이 사회에 차고 넘쳐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 나고 있다. 인민군대의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정신과 인민군군인들속에서 높이 발휘되고 있는 혁명적동지애와 고상한 도덕생활기풍이 전 사회적인 풍모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가 건설하는 강성대국은 혁명적인 사상과 투쟁기풍과 함께 고상한 사회주의도덕이 온 사회에 꽉 차넘치는 사회이다. 우리 당은 지금 강성대국의 체모에 맞게 사람들의 도덕생활분야에서도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사상과 도덕의 위력으로 제국주의를 압도하고 이 땅우에 사랑과 충성, 숭고한 의리와 화목이 꽃 펴나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려는 당의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우리 사회의 정신도덕적풍모를 새로운 높이에 올려 세워야 한다.

현 시기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도덕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받드는 우리 사회의 고상한 도덕적풍모를 더욱 활짝 꽃 피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운명의 수호자, 삶의 태양으로, 자애로운 어버이로 모시고 받드는것은 우리 인민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이며 그것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새 세기 진군길에서 더욱 높이 발휘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 따라 천만시련을 넘고 헤쳐 오는 나날에 장군님의 품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수 없고 죽어도 전사의 의리를 저버릴수 없다는것을 확고한 신념과 량심으로 간직하였기에 우리 인민은 자나깨나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그리며 선군혁명의 길에 순결한 충정을 바쳐 가고 있다.

자기의 신념과 량심으로부터 위대한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며 준엄한 날에나 평범한 날에나 오직 장군님만을 그리고 따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고결한 정신세계에 세계가 경탄을 금치 못하고 원쑤들은 전률하고 있다.

도덕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받드는 선군시대의 참다운 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킬 때 우리 일심단결의 위력은 천백배로 강화되게 될것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도덕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사회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더욱 활짝 꽃 피우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내일 계속)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숭고한 덕성을 지니신 인덕의 최고 화신

≪기념특강≫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위인의 풍모를 천품으로 지니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제3회)
리종욱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4월 3일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먼저 시간에 백전백승의 비범한 영도력을 지니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위인상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은 천재적인 사상이론적 예지와 백전백승의 영도력을 지니신 위인중에 위인이실 뿐아니라 숭고한 인덕을 지니시고 인민에 대한 사랑이 대화원으로 만발한 이상사회를 안아오신 인덕의 최고화신이십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숭고한 덕성을 지니신 인덕의 최고 화신이시라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수령님은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는 숭고한 덕성을 지니신 진정한 인민의 수령이십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인덕은 단결과 협력을 생존방식으로 하는 인간사회에 고유한 것이며 인간사회가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세계로 되게 하는 근본바탕입니다. 인덕이 없는 사회는 물이 없는 사막과 같은 것입니다. 물 없는 황막한 사막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없듯이 인덕이 없는 사회는 인간 미덕과 화목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기에 예로부터 사람들은 덕망 높은 인물을 성인으로 존경하고 따랐으며 인덕이 지배하는 사회를 갈망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 숙망은 오랜 세월 한갖 꿈으로만 남아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인덕에 대한 인류의 세기적 숙망을 한몸에 체현하시고 숭고한 인덕이 활짝 꽃펴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사회를 건설해 놓으신 인덕의 최고 화신이십니다.

숭고한 덕성을 지니신 인덕의 최고화신으로서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인상은 편리상 3개의 체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요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인의 인덕은 곧 인민에 대한 사랑이며 인덕의 높이는 다름아닌 인민에 대한 사랑의 높이입니다. 인민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은 참다운 인간 사랑의 최고 정화이며 빛나는 귀감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사랑의 숭고성은 우선 우리 인민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안겨주시고 모두가 자주의 새 인간으로 태어나 가장 복받은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여주신 위대한 사랑이라는데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인민 모두의 가슴 속 깊은 사연까지 헤아려보시고 풀어주시는 한없이 다심하고 웅심깊은 사랑이라는데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45(1956)년 어느 한 나라를 방문하셨을때 있은 일입니다. 화학섬유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해가스가 풍기는 방사기밀봉창도 열어보시고 노동자들과 담화도 하시면서 공장의 마지막 층인 5층까지 다 돌아보셨습니다. 수행원들은 이제는 떠나실줄만 생각하였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붕위까지 올라가 보자고 하시며 벽에 붙어있는 위험한 수직 사다리로 오르셨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비에 젖은 사다리로 지붕도 미끄러웠습니다. 동행하던 그 나라의 정부 수반도 공장 지배인도 어쩔줄 몰라 하였습니다. 지붕위에 올라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행한 한 기술일군을 부르시여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은 우리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게 옷을 해 입히자면 하루빨리 청진화학섬유공장을 복구해야 하며 그러자면 유해가스를 없애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겠는지 늘 걱정된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의 생산설비만이 아니라 지붕도 다 살펴보고 참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참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일군은 뜨거워 오르는 가슴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께 ≪수령님 비가 내립니다. 그 모든 일은 저희들에게 맡기고 어서 아래로 내려가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말씀 올렸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없소, 비야 좀 맞으면 뭘 합니까. 헐벗었던 우리 인민이 비단 옷을 입게 되고 우리 노동자들이 그 역한 냄새를 모르고 일하게 된다면 무엇을 가리겠습니까 라고 하시며 미끄러운 지붕의 모서리에까지 나가시여 손으로 바닥까지 짚어보시며 세세히 살피셨습니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을 말해주는 이 감격적인 순간을 목격한 그 나라 수반은 나라 공장을 돌아본다고 했지만 아직 지붕에는 한번도 올라가 본적이 없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참으로 위대한 분이시라고 흥분된 어조로 말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은 평생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란 하나도 없으셨고 모든 것을 오로지 인민을 위해서 바치셨습니다.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한없이 뜨겁고 고결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영도자의 덕성의 숭고성과 위대성은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함께 혁명동지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고결한 의리에 있습니다.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지처럼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혁명은 동지를 구하는 일로부터 첫걸음을 떼며 동지가 많으면 혁명은 승리하기 마련입니다. 참다운 동지는 뜨거운 동지적 사랑과 의리를 지닌 사람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백수십년이 흘러간 공산주의운동역사는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에 대한 가지가지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수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운동사에 어느 갈피에도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님처럼 한평생 혁명동지를 위해서 살고 혁명동지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사랑, 숭고한 의리를 지니신 위대한 동지애의 화신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좋은 동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하신 아버님이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동지를 얻는 것으로부터 혁명투쟁을 사작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지를 위해서라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셨으며 동지가 많은 것을 가장 큰 재부로, 동지들의 사랑과 믿음을 받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시며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의 가장 아름다운 역사를 창조해 오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벌써 열렬한 사랑과 믿음에 기초해서 동지적 관계를 맺는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결합돼서 사랑과 믿음으로 운명을 끝까지 같이 해 나가는 사람들이 동지이고 동지를 얻은 다음에는 절대로 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견지하신 혁명동지관이였습니다. 간고한 지하혁명 투쟁시기에는 한명의 동지를 얻기 위해서 사선을 헤치며 하루 밤에도 수백리 길을 걸으시였고, 항일혈전장에서는 언제나 동지 한명을 적 수천명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하시며 동지들을 무한히 아끼시고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과 건설을 영도해 오신 한평생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함께 싸운 혁명동지들과 전사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언제나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신 숭고한 혁명적 동지애와 혁명적 의리의 역사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인덕에 대한 인류의 세기적 숙망을 한몸에 체현하시고 숭고한 인덕이 활짝 꽃펴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사회를 건설해 놓으신 인덕의 최고 화신이십니다.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한없이 넓은 도량과 위대한 포옹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천태만상의 사람들의 마음이나 생각을 널리 헤아릴 수 있는 호방하고 웅심깊은 생각을 도량으로 일러왔고 사람들을 아량있게 대하고 너그럽게 감싸 품어 줄 수 있는 인덕을 포옹력이라고 해왔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한없이 넓은 도량과 위대한 포옹력을 지닌 걸출한 위인이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은 물론 부르조아정객들까지도 감탄해 마지않는 참으로 걸출한 위인만이 지닐 수 있는 특출한 풍모였습니다. 전미국대통령 카터까지도 위대한 수령님의 한번 만나 뵈옵고는 ≪그분은 미국의 건국과 운명을 대표했던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 3대 대통령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라고 감탄해 마지않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폭에 있어서나 감화력에 있어서 일찍이 그 어느 위인도 지닐 수 없었던 가장 뛰어난 도량과 포옹력을 지니신 인류의 태양이셨으며 인류가 오랜 세월 그토록 갈망해오던 운명의 수호자이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노동자, 농민은 물론 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 양심적인 민족자본가와 종교인들까지도 혁명의 동력으로 보시고 그들 모두를 한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애국애족의 양심을 지닌 사람이라면 과거를 불문하고 사랑의 넓은 품에 안아 재생의 길로 이끌어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 뿐아니라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인민들의 운명개척을 두고도 심려하셨고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여러나라 수반들과 당수들, 정계와 사회계, 학계의 저명한 인사들과 친분관계를 맺으시고 두터운 정을 나누셨습니다. 지금 세계 100여개 나라, 450여개 대상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생겨 있어본 적이 없는 경이적인 사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한 온 인류의 흠모심의 열도와 그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은 만민을 다 담는 무한대의 도량과 만 사람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한없이 뜨거운 포옹력을 가장 이상적으로 체현한 위대한 인간사랑의 품이였으며 수령님의 도량과 포옹력은 한나라, 한지역만이 아니라 온 지구를 감싸는 하늘같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이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고결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 무한대의 도량과 포옹력을 천품으로 지니신 가장 숭고한 인덕의 최고 화신이셨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지니신 위대한 혁명가이시라는데 대해서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미방위비분담협정 서명

최성홍(崔成泓) 외교통상장관과 토머스 허바드 주한미대사는 4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향후 3년간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 주둔경비 분담금을 담은 ≪제5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올해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및 주한미군 관련 경비 등으로 미화 5천880만달러와 한화 5천368억원(총 한화기준 약 6천100여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협정안은 2003년과 2004년에는 각각 전년도 분담금보다 8.8%를 인상하고 전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증액시킨 금액을 한국 정부가 분담키로 되어 있다.

황재훈기자
연합뉴스 2002/04/04

4일 최성홍장관과 허바드주한미대사가 한.미방위비분담협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보이기시작한 희망, 문화반미 소용돌이치는 한국

숏 트랙 경기를 보았나 야비한 나라 fucking USA/ 그렇게 금메달 따니까 좋으냐 더러운 나라fucking USA/ 이래도 미국이 정의로운 나란가 도대체 왜 우린 할말도 못하는가/ 우리가 식민지 나라의 노예인가 이제는 외치리라 미국반대….

이것은 과격한 반미집단의 선전문구가 아니다. 김동성 선수가 겨울 올림픽의 숏트랙 경기에서 실격한 것을 한국의 민중가요 작곡가 윤민석씨가 노래로 만든 ≪fucking(야비한) USA≫의 가사의 일부이다. 윤민석씨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서울에서 평양까지≫를 작곡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한국문제에 관심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구나≫라고 수긍할 것이다.

윤씨가 2월 22일 이 노래를 인터넷 사이트 송 앤 라이프(www.songnlife.com)에 MP3 방식으로 공개하자 하루 3만건 이상 클릭할 만큼 히트하고 있다고 한다.

윤씨가 ≪반미가≫를 만든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 과자를 먹다가 기절한 부시 대통령을 조롱한 ≪기특한 과자≫와 북을 ≪악의 축≫으로 부른 부시 대통령의 연설을 비판한 ≪또라이 부시≫도 작곡했다. 그는 ≪도둑맞은 금메달≫을 넘어 ≪반미≫와 ≪통일≫을 주장하고 싶었다고 한다.

≪… USA≫의 유행에서 볼수 있듯이 최근은 반미운동이 ≪운동권의 반미≫에서 ≪문화 반미≫로 변했다고 한다. 또한 10대 소년층에서 확산되고 있다. 미국식 소비문화에 대한 불특정 다수의 청년들의 반발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직적으로 호소하는 미제 불매운동 등 ≪트렌드 반미≫가 특징이다.

불매운동 대상의 미국제품은 맥도널드, 스타벅스, 코카콜라 등인데 제창자가 F15K 전투기 불매운동까지 하자고 생각할 만큼 ≪반응이 있다≫는 것이다.

또 ≪악의 축≫ 발언과 김동성 사건을 계기로 반미서적이 팔리고 있으며 미국을 찬미하고 타민족을 멸시하는 헐리웃 영화가 냉대 받고 있다. 친미였거나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젊은이들 속에서 ≪강한 미국≫에 대한 거부감이 나오고 있다. ≪병주고 약준다≫는 미국식 방식을 간파한 젊은이들에게서 조국의 희망이 보인다.

민족시보 제971호
2002/04/01

너무 아름다워, 잔인한 봄날

홍익대, 故조중필씨 5주기 추모제 진행

지난 4월 3일, 이날도 교정엔 하얀 목련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따스한 봄 햇살 사이로 연록색 나뭇잎들이 반짝였다.

≪해마다 목련꽃이 피어날 봄날이면 중필이 생각이 나. 오늘도 학교에 들어서는데 중필이 사진이 있는 포스터를 보니 어찌나 미치겠던지.≫

까만 정장을 차려입은 조중필씨 어머니의 한숨섞인 목소리다.

벌써 5년째. 조중필씨는 이미 죽고 없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죽음의 진실은 밝혀지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맴돌고 있다.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을 아십니까

≪조중필≫하면 잘 몰라도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이라고 하면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조중필(당시 22세. 홍익대 휴학중)씨는 지난 1997년 4월 3일, 이태원 버거킹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칼로 가슴과 목 등을 9군데나 찔려 살해당했다. 당시 현장에는 재미교포 에드워드 K 리(20)와 미군속 아들 아더 패터슨(20) 오직 2명만 있었고, 친구 사이인 이 둘은 서로 상대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수사 결과에 의하면 에드워드 리가 잭나이프를 가지고 놀다가 페터슨에게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마침 화장실에 가던 조 씨를 따라 들어가 마구 찔러 숨지게 하고는 나오면서 ≪피보기 게임을 하였다, 재미로 사람을 죽였다≫는 등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결국 에드워드 리는 1심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페터슨은 단지 폭력죄로 기소되어 장기 3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을 받았으나 1년도 채 안돼 1998년 8.15 특사로 석방되었다. 이후 에드워드 리는 대법원까지 간 끝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그러자 유가족은 페터슨을 다시 살인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제때에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하고 말았다.

따라서 지금은 당시 현장에 있던 두 명의 살해 용의자 모두 미국에 가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더 이상의 수사나 재판이 불가능해 사건은 지금껏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9.11 테러 때 박수치며 봤다

≪작년 9.11 테러 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안타까와 했는데, 나는 박수치며 봤습니다. 중필이가 이걸 보며 조금이나마 웃을 수 있을까... 누구도 미국에 대항하지 못하는데 참으로 대단해 보였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이(오사마 빈 라덴) 살아 있다면 백악관을 폭파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인들이 많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인권이 중요한 걸 알 겁니다.≫

유가족 대표로 연단에 서서 하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혹자는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또 혹자는 너무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할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그 심정을 이해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페터슨이 살인을 했다고 말했다는 증인을 불러 증인신문을 하려 했지만 그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자라는 이유로 미군측이 비협조적으로 나와 재판서류조차 송달하지 못했다. 불평등한 SOFA도 그렇지만, 애초에 미측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 보다 협조적으로 나왔다면 지금처럼 답답한 지경에 이르진 않았을 것이다. 미국이 자국인의 생명과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한국인의 그것 역시 소중히 여겼다면.

더욱 답답한 것은 사건의 진실 규명에 중핵적 역할을 해야 할 한국 검찰의 무책임한 태도다.

검찰은 미군측이 초동수사에서 페터슨이 범인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고 에드워드 리가 범인이라고 하였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유가족이 페터슨을 살인죄로 고소한 후에도 출국금지 기간을 제때에 연장하지 않아 범인의 도주를 방조하였다.

이에 유가족은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국가기관인 검찰이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한 결과 살인자에 대한 수사와 응분의 처벌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을 물어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추모제 내내 날은 여전히 화창하였다. 너무도 아름다운 봄날.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어둡고 무겁기만 한 추모제 분위기와 극명히 대조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더욱 슬프게 만들고 있었다. 정말 잔인하리만치 아름다운 봄날이다.

이소희기자
오마이뉴스 2002/04/04

≪민주노동당≫이 국민신뢰 1위정당으로 집계

≪민족통신≫이 조사한 독자여론조사에서 ≪민주노동당≫이 압도적 신뢰도 획득

민족통신이 조사한 독자여론조사에서 ≪민주노동당≫이 총투표자 1,341명중 853명으로 전체참가자의 63.6%로 나타나 다른 보수정당들에 비해 압도적인 신뢰도를 획득했다. 이 여론조사는 한사람이 한표 밖에 할 수 없도록하여 지난 2주 동안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당은?≫라는 질문을 주고 5개정당 가운데 하나의 정당만 선택하도록 한 조사 결과에서 반영됐다. 2위는 민주당이 298표(22.2%), 3위는 한나라당이 114표(8.5%), 4위는 사회당으로 58표(4.3%), 그리고 5위는 자민련이 18표(1.8%)로 각각 나타났다.

≪진보정당의 미래 전망≫

진보정당의 미래는 밝다. 오늘의 진보세력들은 과거의 지향과는 다른 차원으로 성장하고 있다. 자신들이 정치세력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었고 서민정치세력화만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진단한다.

또한 지난 분단 반세기 동안 집권해 온 모든 정당들이 하나같이 보수정당들로서 그 체질 자체가 사대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성을 보여왔다. 그래서 국민들은 언제나 불만과 불평으로 일관하여 왔다.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보수정당에 입문하면 그 률안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것이 지나간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검증되어 왔다. 보수정당의 정객들은 정치강령에서도 한계성을 탈피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들의 다수가 사대주의의 의식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부조리 테두리안에서 허우적거리는 바람에 툭하면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되어 하루아침에 부정부패의 상징인물로 둔갑하여 왔던 것이 우리 정당사의 발자취였다.

군사독재정치가 막을 내리고 민간정부로 들어오기 시작한 문민정부나 현재의 국민의 정부 또한 부정부패의 울타리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비판적 화살을 받아왔었고 지금도 받고 있는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집권세력들은 또 8.15 이후 건국 태초부터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세력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친일무리들로 엮은 사대매국세력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 민족세력들은 오히려 탄압의 대상으로 숱한 고통과 고난속에 존재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역사로 점철되어 왔다.

국민들은 속고 또 속아 왔다. 선거때 마다 난무하는 구호들과 홍보물들은 저마다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는데 당선되어 집권하면 반민주, 반민족, 반통일적 길을 걸어왔다는 것은 이제 와서는 삼척동자도 주지하게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한편 압도적인 숫자를 점하고 있는 서민들은 정치에 무관심하여 왔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계급계층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해 왔다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다. 지나간 오랜 세월속에 그 고정관념은 깨지고 말았다. 국민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들이 사회의 주인이며 나라의 기둥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됨으로서 민중들의 정치세력화는 기필코 이뤄야 할 당면과제로 강력하게 부상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으로 진단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민주노동당≫이 과거의 진보정당 구성과는 다르게 일부 사람들의 조직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인 지식인 등 다양한 세력들이 합세하여 기층대중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고 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보수정당들에 식상한 국민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최근의 민주당 경선들을 보며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도 경선을 한다고 하는 소식과 함께 보수정당내에서 오고 가는 갈론

을박들을 접하며 한층더 진보정당의 정치세력화가 절실함을 느끼게 된다.

노동자들의 지위와 역할을 무시하는 보수정당들에게 우리들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주한미군지위 문제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보수정당들에게 우리가 민족을 위한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민족문제의 가장 우선적 안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통일문제를 놓고서도 횡설수설하는 보수정당들에게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심지어는 국민대다수가 원하는 국가보안법 개폐문제까지도 처리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선거전에서 논쟁만을 일삼는 보수정당들에게 남북문제를 어떻게 맡길 수 있단 말인가.

분단시대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그 어떤 정당이라 할지라도 민족의 통일을 정당의 강령가운데 웃자리에 두지 않는다면 그 정당은 나라를 사랑하는 정당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동안 집권정당들은 이 점을 간과하여 왔기 때문에 민족공조 대신 외세공조라는 미명아래 국민들을 속여 오면서 외세에 비위맞추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한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민중의 정치세력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이라고 본다. 민족통신 독자들이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당은?≫이라는 질문에 63.6%가 ≪민주노동당≫을 지목한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의 미래가 밝다고 보는 근거중 하나도 이러한 기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진보정당의 미래가 밝은 것은 또 국민들 대다수의 정서가 보수정객들과는 다르게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예전에 비해 엄청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유권자 과반수를 훨씬 웃도는 연령층이 20대에서 30대라는 점도 진보정당의 미래와 무관하지 않다. 이들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장년이나 노년층과는 차이가 있다. 다시말하면 유권자들의 보수지향경향에서 변화를 바라는 젊은층의 숫자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진보정당의 미래와 유관하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정치변화의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 있었던 미국의 대한반도 지위와 역할이 나날이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한 근거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으로 민족민주세력은 과거처럼 보수정당의 특정 인물에 가졌던 환상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비록 시간이 다소 걸릴지라도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이뤄 서민들의 이익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자주정부 수립의 첩경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민족통신 편집인 2002/04/03

이회창 발언 파문- ≪좌파적인 급진세력이 정권 연장을 기도≫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가 3일 대통령후보 경선출마 선언문을 통해 현정부에 대해 ≪급진세력이 좌파적 정권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고 말해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이 전총재 발언은 최근 강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를 ≪급진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이어서 여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같은 발언은 최근 노무현 의원의 사상을 ≪좌파급진 세력≫으로 규정해 온 이인제 민주당 대선경선후보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앞으로 민주당 경선판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발언의 한 부분이다.

≪개혁으로 위장한 독선과 오만이 국민에게 불안과 고통만 주었습니다. 만약 민주당 정권이 5년 더 연장된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위기와 불안의 대한민국입니다.

이 정권의 연장은 무능과 부패의 연장입니다. 이 정권의 연장은 갈등과 분열의 연장입니다.

지금 급진세력이 좌파적인 정권을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음모와 술수로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무원칙한 작태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청산되어야 할 구태정치가 여전히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이에 앞서 이회창 전 총재는 이날 오전 고려대 정경대 교우회 초청강연에서 ≪볼셰비키 혁명과 나치 출현 등은 당시 대중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바탕이 됐으나 이것이 물줄기를 잘못 잡으면서 역사를 거꾸로 가게 하고 인류를 고통과 파괴로 몰아가게 했다≫며 ≪변화의 방향과 바람이 제대로 가도록 국민이 감시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급속히 확산된 ≪노풍≫을 겨냥, ≪보혁대결의 노선논쟁≫을 금년 대선의 중심축으로 가져가겠다는 의지표명으로 해석된다.

임경구/기자
프레시안 2002/04/02

민주노총, 노정합의안 거부 선언

민주노총이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한 노정합의서를 전면 폐기하기로 했으며 총연맹 임원진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 이로써 노정합의서 문제로 촉발된 민주노총의 위기가 극심한 안개정국으로 빠져들었다.

민주노총은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전교조 회의실에서 긴급 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갖고 발전노조 노정합의서에 대해 이같은 극약처방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또 총연맹 임원진 전원 사퇴안에 대해서는 오는 8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발전소 매각을 강행하거나 발전노조 및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 있을 경우 지난 2일 유보한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합의내용 따른 문제점과 합의과정에서의 공유부족, 총파업 돌입 이후 철회지침 하달에 따른 혼란 등 지난 2일 상황과 관련한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합의서와 관련 전문의 ≪법과 원칙을 준수≫, ≪노사화합≫ 등 민주노총 산하 단위노조 사업장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표현들을 민주노총이 직접 합의해 줬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민영화 관련 합의조항도 정부와 언론 등으로부터 ≪민영화 합의≫로 왜곡되고 있으며 교섭의 상세한 흐름을 알 수 없는 국민들과 조합원들에게는 그동안 민영화 저지투쟁을 전개해온 민주노총이 민영화를 합의해 준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징계문제에 있어서도 ≪적정수준≫, ≪관계당국에 건의≫ 등 당초 요구안이자 산하노조들의 교섭에서 실제로 합의하는 수준인 징계최소화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강하게 제기됐다. 사실상 ≪항복선언≫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회의에서는 파업을 유보하는 과정부터 2일 오후 내내 보여준 민주노총의 조직적 혼선에 대한 책임도 강하게 제기됐다.

특히 발전노조의 내부논의가 장시간 길어지는 동안, 공식적인 합의내용 발표나 해석이 발표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 난무해 발전노조 조합원들 뿐 만 아니라 총파업에 적극 참여했던 민주노총 조합원들마저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파업 유보지침이 하달되기 전까지 투쟁본부 대표자들인 산하 연맹 임원들조차도 합의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조직을 정비하고 혼란을 막지 못하는 등 지도부간의 공유도 이뤄지지 못했다.

이같은 문제의식 속에 연맹들이 총력을 기울여 실질적인 파업을 준비한 것이 결과적으로 교섭체결을 위한 압박용이 된 것도 이후 민주노총의 임단협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됐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당분간 시계 제로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 이홍우 총장은 4일 단병호 위원장을 면회할 예정이어서 단위원장의 태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재홍기자
매일노동뉴스 2002/04/04

테러방지법 ≪만들 필요 없다≫

인권위원장 국회의장 면담, 반대의견 제출

국회에 계류중인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해 인권위원장이 직접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이 4일 오후 이만섭 국회의장을 방문, 테러방지법에 ≪문제의 소지가 많다≫며 국회 설득작업에 나선 것.

유시춘 상임위원과 함께 국회의장 면담에 나선 김창국 위원장은 ≪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으며 현존하는 다른법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이만섭 의장은 ≪나도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말을 들었다. 잘 해결되리라 믿는다≫며 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미리 준비한 총 4페이지 분량의 인권위원회 의견서 요약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인권위원회는 요약문을 통해 △기존의 법으로 대테러 예방과 처벌이 가능 △테러방지법 제정의 논리적 근거 빈약 △인권침해의 소지가 큼 △국가정보원의 월권이 가능해짐 △국가기관의 민주적 운영의 원리에 어긋남 등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5가지 이유를 들었다.

이만섭국회의장(가운데)과 김창국위원장

또한 인권위원회는 △공개토론을 통해 검증과정을 거칠 것 △위헌논란이 있는 만큼 입법을 서두르지 말것 △법안의 전제조건부터 재검토해 입법여부를 결정할 것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 역시 테러방지법에 대해 원칙적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김창국 위원장의 국회의장 방문 전, 인권위 유현 유시춘 상임위원은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를 찾아가 똑같은 요청을 한 바 있다. 면담에 나선 이재오 총무 역시 ≪오전에 기자들에게 이미 입장을 밝혔다. 문제점이 있는 만큼 대폭수정 내지 한시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테러방지법은 4월 임시국회의 여야 주요 쟁점 사안중의 하나로 정부와 여당은 ≪월드컵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테러방지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오히려 야당인 한나라당은 ≪폐지 내지, 월드컵 종료시 까지 한시법으로 하자≫는 주장으로 이에 맞서고 있는 실정.

여야는 8일 부터 열릴 임시국회에 앞서 총무회담을 통해 테러방지법등 핵심 사안에 대한 조율을 마칠 예정이다.

한편 인권위는 시민단체와 학계의 반대입장을 수용, 지난 2월 20일에도 테러방지법을 심의 중인 국회 정보위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김재중기자
디지털말 2002/04/04

조작간첩사건 ≪시효 소멸≫ 배상 기각

조작간첩사건의 가해자에게 공소시효를 적용해 면죄부를 준 검찰이 이번에는 민사상 시효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배상의 기회마저 박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제주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 김우경, 제주지검 소속)는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 이장형 씨가 고문 등 가혹행위와 증거날조에 의해 불법기소 당했다며 지난해 7월 청구한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 시효소멸을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지검은 이 씨가 사건담당 검사였던 이사철 씨와 고문경찰 이근안 씨를 독직가혹행위 등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기각한 바 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에 대해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불법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씨는 84년 연행 후 57일간 법관의 영장없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갖은 고문을 당하며 간첩으로 조작된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98년 8·15 특사로 가석방됐다.

하지만 이 씨의 경우 복역 중에 공소시효 기간(5년)은 물론이고 민사시효 기간도 지난 셈이 되어, 시효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배상신청을 대리했던 이정희 변호사는 ≪이 씨가 98년 석방될 때까지는 배상신청을 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고 봐야 하지만 배상심의회에서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민사시효의 협소한 적용을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불복, 법원에 손배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지구배상심의회는 이근안 씨의 고문행위 여부에 대해 △비정상적인 구금일수 등 수사절차상 심각한 문제점 △비슷한 시기 불법감금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점 △다른 여러 사건에서 고문을 한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가해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씨의 자백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고문에 의한 ≪증거날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배상심의회가) 불법구금과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 자체가 성과≫라며, ≪이를 기초로 이 씨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배상판결을 보고 법원은 재심을 받아들일 것≫이고 ≪재심에서는 고문이 있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면 허위자백에 의한 증거날조 부분이 유죄로 판결받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범용기자
인권하루소식 2002/04/02

조선노동당과 한민전의 영도자

조선노동당의 영원한 수령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에서 조선노동당과 **김일성**주석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선로동당창건 50돐을 맞이하는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력사적인 승리와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여 온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 보며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령도하여 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다함 없는 감사와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하고 있다.

조선로동당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새형의 로동계급의 당으로 창건되였으며 반세기에 걸치는 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로숙한 혁명적 당으로,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 수행의 빛나는 새 력사를 창조하여 왔으며 이 길에서 불멸의 위대한 업적을 쌓아 올렸다.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곧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다. 우리 당이 걸어 온 시련에 찬 투쟁의 길에도 영광에 넘친 승리의 길에도 **김일성**동지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져 있으며 우리 당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도 우리 당이 지닌 불패의 위력과 높은 권위도 **김일성**동지의 존함과 결부되여 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며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존함과 업적으로 하여 우리 당의 50년 력사가 빛나는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존함과 업적은 우리 당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

통일혁명당은 1979년 8월 25일 창당 10주년을 맞이하여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광천명의의 담화문 ≪위대한 **김일성**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하는 통일혁명당은 필승불패이다≫를 발표하며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0년을 헤아리는, 이 해에 배어 있는 연륜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하는 통일혁명당은 필승불패이다≫라는 한국의 혁명가와 애국민중의 확고한 신념이 흘러넘치고 있다.

따라서 창당 10주년을 맞이하는 이 엄숙한 시각에 우리 통일혁명당의 지도중핵과 당원들의 불타는 심정은 일찌기 혁명의 새벽길을 개척했으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고 인류사에 주체의 신기원을 열었으며, 오늘날 위대한 주체의 조국을 세계 만방에 찬연히 빛내며, 백전백승하는 **김일성**주의의 밝은 빛으로 한국민중의 앞날을 밝히시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무한한 감사의 마음과 영원한 충성의 열정으로 넘치고 있다.≫

오늘 조선노동당의 총비서, 최고영도자는 당연히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다. 올해 당보, 군보, 청년보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20세기 혁명의 년대들처럼 오늘도 무한대한 열정과 투지로 우리 혁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김정일**동지의 령도에서 강성대국의 휘황한 앞날을 내다 보며 새해의 총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 있다.≫

한민전은 올해 신년축하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조종의 성산 백두산에서 솟아오른 장쾌한 해돋이가 제주도 끝까지 온 3천리를 밝히며 불러오는 희망찬 새해의 이 아침,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조국통일의 구성이시고 민족의 운명이시며 자주시대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다함없는 흠모와 열화같은 충성의 한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편 통일혁명당과 한민전은 중앙위원회 위원장 담화가 단 한번도 없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앞서 언급했던 통일혁명당 창당 10주년 기념연설은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광천명의로 발표되었다.

그리고 김종태동지는 통일혁명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통일혁명당 서울시위원회 위원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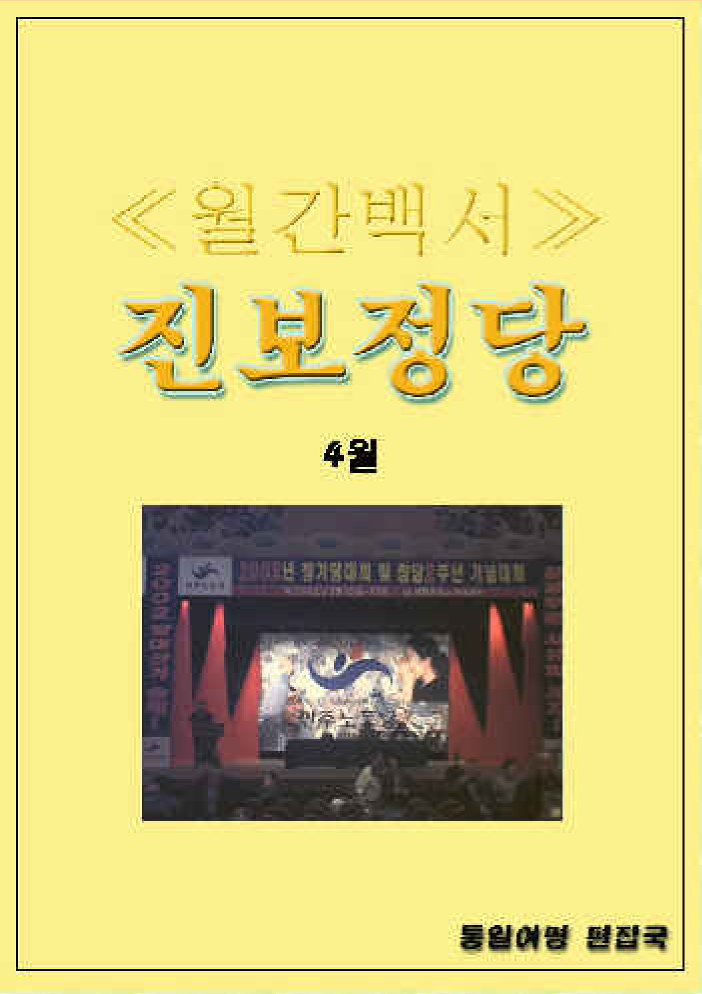
다음은 1978년 11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칠레민중들과의 연대성 세계대회에서 한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연설 내용에서 발췌한 관련 내용이다.

≪이로 말미암아 통일혁명당 서울시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종태동지와 전라남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최영도동지를 비롯한 9명의 혁명가들이 학살되었으며 무려 9천 명에 달하는 통일혁명당사건 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친지들은 항시적인 감시와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

광고

≪월간백서≫ 4월호



다음은 한민전이 지난해 7월 7일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주기에 즈음하여 발표한 한민전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명의의 담화문 일부이다.

≪오늘 우리는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7주기를 맞고 있다.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의 애국민중에게 있어서 지난 7년간은 얼마나 위대하신 만고절세의 위인을 민족의 영수로 모셔왔는가를 폐부로 절감하며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워온 경모의 나날이였다.

. . .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층 애국민중은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을 우러르면서 경애하는 수령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어 조국통일도, 민족의 부강번영도 반드시 이룩된다는 확고한 신념에 넘쳐 있다.

우리들은 21세기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모신 크나큰 자긍심을 깊이 간직하고 장군님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활화산처럼 분출시켜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새 세기의 가까운 앞날에 기필코 실천하고야 말 것이다.≫

우리는 이상의 당문헌을 통하여 오늘 조선노동당과 한민전의 최고영도자는 바로 **김정일**장군님임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여명 편집위원 강인규(편집국 보도 71호)
주체 91(2002)년 4월 1일

조선노동당과 한민전의 지도이념

조선노동당은 지도이념은 주체사상이다. 다음은 조선노동당을 창건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조선노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의 관련 발췌문이다.

≪조선노동당의 지도사상은 주체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이며 우리 혁명과 건설의 가장 올바른 지도적 지침입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혁명적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입니다. 주체사상은 우리 나라의 혁명실천에서 그 정당성이 뚜렷이 검증되었으며 장기간의 투쟁과정을 통하여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당의 건설과 모든 당활동을 진행합니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건설과 활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사람을 기본으로 보고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로 모든 것을 복종시키며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합니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조직사상적 공고화의 기초입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당을 조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전당의 사상적 일색화를 실현함으로써 당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보장합니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는데서 우리 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됩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의 노선과 전략전술을 세우며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대중의 창조력을 조직동원하여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합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여 왔습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창건되고 강화, 발전되였으며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영도하여 왔습니다.≫

통일혁명당은 1969년 창당이래 일관되게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을 삼아왔다. 다음은 통일혁명당 선언문의 관련 발췌문이다.

≪통일혁명당의 지도 이념은 마르크스 · 레닌 주의를 현 시대와 우리 조국 현실에 맞게 독창적으로 구현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40여년 간의 험난한 혁명의 폭풍우 속에서 완벽함을 과시한 우리 시대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이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무궁한 활력을 가지며, 우리 인민만이 아니라 전세계 수억만 인민들의 진로를 휘황히 명시해 주고 있다. 우리 당은 바로 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있기에 불패이다.≫

통일혁명당은 1985년 한민전으로 전화발전하면서 자신의 지도이념을 다시금 분명히 하였다. 다음은 한민전의 한국민족자주선언의 관련 내용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우리 ≪한국민족민주전선≫은 한국민중의 지향과 의사의 체현자이며 애국적 전위대이다.≫

이상의 노작과 문헌을 통하여 조선노동당과 한민전의 지도이념이 하나로서 바로 주체사상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통일여명 편집위원 강인규(편집국 보도 72호)
주체 91(2002)년 4월 1일

하나 민족도 나

조국통일3대헌장

90년대통일에로 (2)

향도의 태양 김정일장군

90년대를 통일의 연대로 되게 하시려는 그분의 지향은 참으로 강렬하고 숭엄한 것이였다.

그분께서는 이무렵 남과 북, 해외의 통일력량을 망라하는 첫 련합체를 내올때에도 ≪조국통일범민족련합≫으로 이름을 다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였으며 평양시 락랑구역일대에 웅근 하나의 도시에 맞먹는 규모의 새로운 현대적주택거리를 건설할 때에도 그 이름을 ≪통일거리≫로 부르도록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하얀 눈이 덮여있던 그날 락랑거리를 ≪통일거리≫로 명명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이 전파를 타고 울려퍼졌을 때 겨레의 가슴가슴은 또다시 90년대통일의 열기로 뜨거워졌다.

그분께서는 조국해방 45돐이 되는 90년을 계기로 력사적인 1948년 4월 남북련석회의 당시 참석자들의 협의모임이 있었던 유서깊은 대동강 쑥섬에 사적지를 꾸려≪통일전선탑≫을 세우도록 하시였으며 ≪조국통일상≫을 제정하도록 하시는 등 남과 북, 해외에 있는 온 겨레의 90년대 통일열기를 높이는 조치를 련이어 취하시였다.

통일의 구상이신 **김정일**령도자의 정력적인 노력은 빛나는 열매를 맺었다. 1990년 8월 15일, 분단 45년만에 남과 북, 해외의 광범한 인사들이 참가한 력사적인 범민족대회가 열리였다.

대회에서는 90년대에 통일성업을 실현하려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고 전민족적인 통일애국세력의 련합체인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을 결성하였다. ≪범민련≫의 결성에 이어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범청학련)도 결성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전민족적통일열기가 높아가는 정세에서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성사시켜나가도록 하시였다. 이렇게 하여 1990년 9월부터 민족분단이래 처음으로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게 되였다.

그분께서는 이 회담에서 남북의 군사적대결상태의 해소, 통일지향적인 평화의 보장, 외국군대의 철수와 남북군축실현문제를 당사자들간의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천명하도록 하시였다.

그분께서는 고위급회담이 민족적화해를 도모하고 불가침을 약정하며 협력과 교류의 길을 열어놓을수 있도록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방안들을 거듭 밝혀주시고 회담이 열매를 거둘수 있게 하시였다.

1991년 12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과 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고 뒤이어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표된 것은 **김정일**령도자의 숭고한 민족애와 정력적인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할수 있다. 남북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 채택된 것은 온 겨레에게 90년대 통일실현의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민족의 통일대행진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계속)